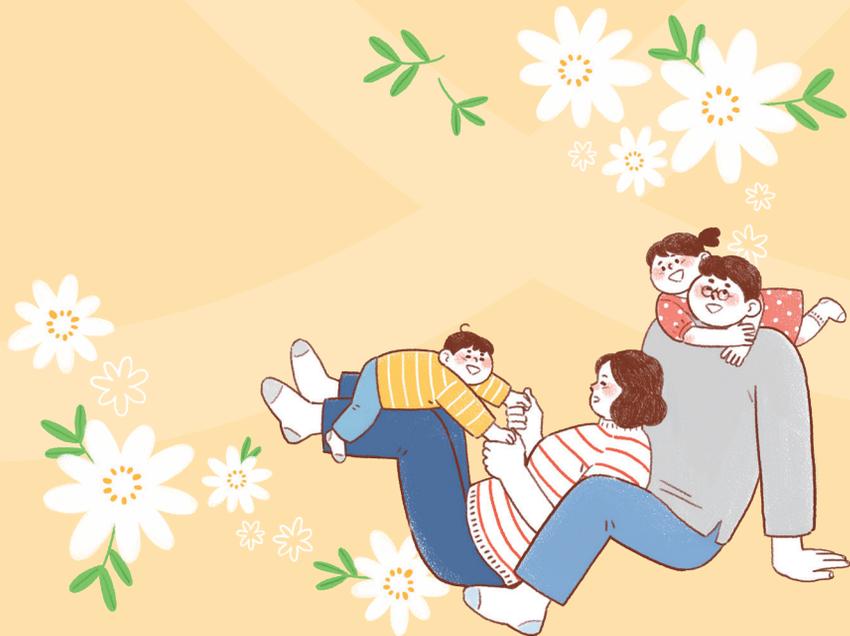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한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목차

I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1. 추구하는 인간상과 보육과정의 목표	3
2. 표준보육과정 구성 시 고려사항	4
3. 표준보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리	5
4. 표준보육과정 교수학습의 원리	6
5.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의 내용	8

II 영아 놀이의 이해

1. 놀이의 특성과 중요성	13
2. 영아 놀이 발달	17

III 시간제보육 특성에 따른 영아 적응

1. 낯선 환경에서의 영아 반응 이해하기	23
2. 시간제보육에 적응하기	25
3. 신입 영아와 관계 형성하기	35

IV 시간제보육에서의 교사 상호작용

1. 상호작용을 위한 일반적 원리 41
2. 영아 놀이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초 46

V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의 실제

1.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부분 활용방법 53
2.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실의 환경구성 55

VI 놀이 운영의 실제

1. 봄(3~5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59
2. 여름(6~8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73
3. 가을(9~11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87
4. 겨울(12~2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95

□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2020년 4월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대한 고시가 발표된 이래, 같은 해 9월부터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기존 교사의 계획 위주로 실행되어지던 교사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놀이를 중심으로 그 운영의 축을 바꾸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놀이가 중심이 되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으로서의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방향성은 어린이집의 정기보육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 차원의 비정기 보육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간제보육 프로그램도 교사가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교사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놀이가 더 부각되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의 양육정책서비스 정책에 따라 실시되어온 기존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영아의 놀이가 강조되는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구성 내용

본 매뉴얼은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자 한다. 이에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과 영아 놀이 발달을 포함하여 비정기적인 시간제보육의 특성에 기인한 영아의 적응과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 추구하는 인간상과 보육과정의 목표
- 표준보육과정 구성 시 고려사항
- 표준보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리

- 표준보육과정 교수학습의 원리
-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의 내용

II. 영아 놀이의 이해

- 놀이의 특성과 중요성
- 영아 놀이 발달

III. 시간제보육 특성에 따른 영아 적응

- 낯선 환경에서의 영아 반응 이해하기
- 시간제보육에 적응하기
- 신입영아와 관계 형성하기

IV. 시간제보육에서의 교사 상호작용

- 상호작용을 위한 일반적 원리
- 영아 놀이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초

V.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의 실제

-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의 실제 부분 활용방법
-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실의 환경구성

VI. 놀이 운영의 실제

- 봄(3~5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 여름(6~8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 가을(9~11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 겨울(12~2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절차 및 활용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개발된 기존 자료 분석을 기초로 연구진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집필의 방향성과 구성 내용을 설정하였다. 구성의 방향성은 표준보육과정 개정의 관점에서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이론과 실제편으로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이론 부분에서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영아의 놀이 이해를 새롭게 첨가하고,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시간제보육의 특성을 고려한 영아의 적응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다루도록 한다. 실제 부분은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해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교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성과 내용으로 집필된 내용은 보육 전문가의 검수 과정을 거쳤다.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매뉴얼은 시간제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배부하여 담당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보육을 준비하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교사를 위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I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1. 추구하는 인간상과 보육과정의 목표
2. 표준보육과정 구성 시 고려사항
3. 표준보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리
4. 표준보육과정 교수학습의 원리
5.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의 내용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유아 대상의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해 9월부터 영아 대상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생활하던 영아가 일정 시간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보살핌과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받게 되는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역시 개정된 표준과정과 맥을 같이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개정된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정의 내용 살펴보고 같은 맥락으로 시간제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의 실제 운영자들이 숙지해야 할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주요 내용이다.

01 추구하는 인간상과 보육과정의 목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미래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고 이 중 ‘건강한 사람’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와 정신 건강의 기초를 형성하는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아가 일상에서 놀이하듯 배우는 현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아가 앞으로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할 모습이기도 하다.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는 영아가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추구하는 인간상과 보육과정의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0-2세 보육과정 목표
건강한 사람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자주적인 사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사람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02 표준보육과정 구성 시 고려사항

표준보육과정을 구성할 때, 영아에게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영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다.

모든 영아는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 발달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차를 가진다. 따라서 영아는 개개인이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모든 영아는 어떠한 편견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표준보육과정은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영역은 영아가 보육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경험하거나 경험해야 하는 내용이다. 경험은 영아가 생활하며 직접 체험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지식이 아닌 보육 과정의 실재를 의미한다. 영아의 경험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배우는 실제 내용을 존중하고 지원하여 자연스럽게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실천되도록 한다.

03 표준보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리

-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바깥놀이를 포함한 놀이는 하루일과 중 가장 긴 시간으로 우선 편성하여 엄마가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등원하기, 손 씻기, 배변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간식 및 점심 먹기, 낮잠 자기, 휴식 취하기 등은 영아의 신체적 리듬을 반영하여 영아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는 영아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하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사는 미리 계획한 활동을 모두 해야 한다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흐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한다.
- 놀이 시간은 짧게 여러 번 제공하기보다 길게 편성하여 영아가 충분히 놀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날씨와 계절, 기관의 상황, 영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놀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예로, 하루일과에서 바깥 놀이는 미세먼지,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를 편성 운영하거나, 길게 진행할 수도 있다.

04 표준보육과정 교수학습의 원리

- 표준보육과정은 영아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는 놀이를 강조한다.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는 영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끌어 가는 놀이를 의미한다. 교사는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아가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긴다. 특히 영아는 짧고 단편적 놀이 특성을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교사가 미리 준비한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 영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며 즐기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 교사는 일상생활 경험과 활동에도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영아가 즐겁게 경험하며 배우도록 지원한다. 활동을 운영할 때 교사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내용과 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하여 영아가 즐겁게 배우도록 한다. 만일 교사가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라도 이는 영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영아의 흥미나 관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생활주제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영아가 주도해 가는 놀이와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는 계획안을 활용하여 영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을 적합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지원 내용도 함께 작성한다. 계획안은 영아가 놀이하며 배우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며, 이를 작성하면서 영아에게 필요한 놀이 지원도 함께 계획할 수 있다.
- 놀이 환경은 영아가 놀이하는 실내외 모든 공간과 놀이 자료를 포함한다. 영아가 보고 듣고 만지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은 놀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다. 교사는 놀이 공간을 구성하고 변형해 나가며 영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원한다. 보육실의 흥미 영역은 영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특히 왕성한 신체 발달을 이루어가는 영아들에게 신체를 움직이며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실 밖의 복도나 계단 등 영아가 놀이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후에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실외 공간은 영아가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만나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다. 교사는 영아가 몸을 충분히 움직여 즐겁게 놀이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외 놀이 환경은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 놀이 자료는 영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 매체, 재료와 도구 등을 포함한다. 놀이 자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상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자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물이다. 특히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크기, 감촉, 모양, 색 등을 고려하여 놀이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좋다. 교사는 영아에게 일상의 평범한 사물, 자연물, 악기, 그림책 등을 적절히 제공하고, 구조성이 낮은 열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제공된 자료들은 영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놀이 자료를 제공할 때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자료의 사용 방법이나 놀이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상호작용의 경우, 영아에게 교사와의 애착과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놀이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배움을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에 귀를 기울여 그 의미와 배움을 발견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무엇보다 먼저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칭찬, 격려, 미소, 공감 등 정서적 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놀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격려한다. 교사는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교감하며 놀이를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 교사와의 상호작용 외에 영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 환경은 영아의 놀이가 활성화되는 배경이자 영아가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는 원천이 된다. 영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영아 주변의 친근한 공간, 자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모든 환경과의 교감을 포함한다. 영아는 반복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배워나가므로, 교사는 영아의 환경 탐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각을 이용한 환경 탐색을 위한 안전한

환경 구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일과는 놀이와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운영하며, 개별 영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건강 상태, 날씨나 계절, 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획일적인 일과를 운영하기보다는 배변이나 낮잠, 휴식 등 영아마다 다른 신체 리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특히 영아는 어린이집에 오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던 신체 리듬과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개별 일과 운영은 더욱 중요하고, 영아가 어린이집의 일상생활과 신체 리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한다.

05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의 내용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구성된 6개 영역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닌 영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이다. 6개의 영역은 각각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영아의 경험 측면에서도 한 가지 영역만 경험하기보다 여러 개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로 2세 영아가 기본생활의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포함되는 양치를 하면서 옆에 있는 또래와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양치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우, 기본생활 속에서 의사소통과 사회관계의 내용이 같이 경험된다. 다음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0~1세와 2세의 영역별 내용 범주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비교할 때 ‘즐기기’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영아의 자연스러운 놀이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2〉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0~1세	2세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활동 즐기기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자연탐구	탐구 과정 즐기기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II

영아 놀이의 이해

1. 놀이의 특성과 중요성
2. 영아 놀이 발달

01 놀이의 특성과 중요성

가. 놀이의 특성

놀이에 대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정확한 정의는 없다. 이는 놀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놀이의 특성을 살펴봄으로 놀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놀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이다.

○ 놀이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내적 동기로 시작되는 활동이다.

영아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행동이라면 놀이가 될 수 있지만, 교사의 주도에 따라 계획한 활동에 큰 흥미 없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놀이라고 할 수 없다.

○ 놀이는 즐겁고, 영아는 놀이하는 동안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놀이에 재미의 요소가 없다면 영아는 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놀이에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얼굴 가득 묻어나는 재미난 표정이 있다. 영아는 놀이하면서 즐겁고 기쁜 정서를 느끼게 된다.

○ 놀이는 행동의 결과보다 행동 자체가 목적인 과정 지향적인 행동이다.

놀이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거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놀이는 행동과 과정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진다.

○ 놀이는 허구적인 요소가 많으며, 상징적이고 모방적으로 표현된다.

놀이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에 얽매 있다면, 이미 놀이의 고유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놀이의 허구적인 상상 요소는 놀이를 놀이스럽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힘이다.

○ 놀이의 규칙은 같이 놀이하는 아이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놀이가 외부의 규칙에 얽매어 있지 않고 놀이하는 아이들끼리 만들어 낸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 놀이는 재미있게 지속된다. 엄격한 규칙에 얽매어 자신만의 놀이를 즐길 수 없다면 영아는 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놀이는 매우 진지하게 진행된다.

놀이에 참여 중인 영아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우 진지하게 놀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아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으로부터 놀이를 시작할 때 집중하여 선택한 놀이를 즐기게 된다.

나. 놀이의 중요성

최근 매스컴과 관련 자료를 통해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편에선 놀이를 교사 주도의 활동, 공부 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며 영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놀이가 영아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거나 어떤 경쟁적이고 점수화된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고등정신기능을 지닌 종으로 발달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놀이이다. 놀이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며, 영아기에는 ‘삶 자체가 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간 많은 놀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놀이는 인지, 정서, 언어, 자기 조절 능력 등에서 인간이 제대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체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사회극 놀이, 규칙 있는 게임 등 각각의 놀이 경험이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Whitebread, 2012).

다. 놀이를 위해 준비된 환경

1) 놀이 시간

영아가 안정적으로 놀이하기 위해 하루일과 중 놀이를 위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제보육의 경우, 주 양육자의 선택에 따라 영아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르지만, 정해진 시간 중이라도 놀이의 비중을 높여서 영아가 즐겁게 놀이하듯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놀이 시간을 정할 때 시간의 길이 자체도 충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길게 이어서 제공하여 영아가 놀이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놀이 자료

영아에게 제공되는 놀잇감과 놀이 자료는 영아들의 놀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놀잇감은 기본적으로 영아 발달에 적합해야 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영아에게 놀잇감을 제공할 때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제공하기보다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주가 되어야 한다. 또 영아가 감각으로 탐색을 즐기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오감을 이용할 수 있는 놀잇감과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영아는 유아에 비해 실물과 유사한 구체적인 놀잇감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 한편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아이들이 구조성이 낮은 개방적 놀잇감을 좋아하는지,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놀잇감과 자료를 준비하여 영아의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이나 자료는 정해진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영아에게 적합한 구조성이 낮은 자료에는 대표적으로 밀가루 반죽이 있다. 영아는 밀가루 반죽을 잡아 뜯어보고,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손바닥 사이에 놓고 비벼서 길게 만들거나 찌기 틀로 찌어 보면서 반죽을 마음껏 변화시키며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밀가루 반죽 만들기

- 준비물: 반죽용 볼, 밀가루, 물, 소금, 기름, 식용색소 가루, 비닐봉지
- 만드는 방법:
 - ① 반죽용 볼에 준비된 자료를 넣는다.
이때 식용색소 가루는 미리 물에 타서 사용한다.
 - ②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손으로 치댄다.
 - ③ 만들어진 반죽을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둔다.
 - ④ 꺼낸 반죽은 교사가 몇 번 주물러 부드럽게 만들어 영아에게 제공한다.

3) 놀이 장소

영아가 안전하게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는 실내·외 놀이 환경을 사전에 계획, 조성하여야 한다.

○ 놀이 공간의 융통성 있는 배치

놀이중심 보육과정은 영아의 놀이 공간인 흥미 영역의 구성과 운영에 교사 자율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놀이 행동을 토대로 융통성 있게 놀이 공간을 배치하여 영아의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 보육실에는 넓은 공간과 분리된 좁은 공간이 모두 필요하므로 한 영역의 크기는 영아의 흥미와 놀이 흐름에 따라 조정한다. 즉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확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놀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까이 배치해주기도 하는 등 교사는 융통성 있게 놀이 공간을 구성한다.

○ 놀이 공간의 확장

영아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공간의 협소함이 놀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되면, 놀이를 방해하는 가구나 영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 놀잇감을 제거함으로써 놀이 공간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 보육실이나 실외 놀이터 외에 복도나 보육실 사이의 공유 공간 등을

찾아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영아의 놀이 공간으로 허용한다. 단 각 공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치우거나 안전하게 처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02 영아 놀이 발달

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 놀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기초가 된다. 놀이 발달은 영유아기에 반드시 발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가. 영아의 놀이 유형

1) 탐색

탐색은 사물의 특성이나 속성에 대한 관심 즉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각을 이용해 ‘이건 딱딱하구나’, ‘이것은 둥글구나’, ‘이것은 빨강이구나’ 등 사물의 특성과 속성을 파악하는 행동을 말한다. 탐색이 영아기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아에 비해 처음 경험하는 궁금한 사물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아들의 이와 같은 탐색 활동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교사들의 “이게 뭐지?”라는 질문은 영아의 탐색 행동을 촉진하는 아주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다. 능동적 학습자인 영아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이리저리 다루어보면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감각을 이용한 미술, 음악 관련 요소의 탐색을 통해 예술적 요소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 영아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개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심미적 감각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이영 등, 2006). 또한 영아는 놀잇감 탐색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관찰하면서 물리적 현상과 기초적인 인과 관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기능놀이

기능 놀이는 영아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영아가 우연히 재미있는 놀이를 발견하고 그 행위를 즐기기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 놀이는 소리를 귀로 듣거나 움직임을 눈으로 보는 등 감각적인 탐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운동 놀이, 반복 놀이라고도 부른다(서울시보육지원센터, 2018). 기능 놀이는 우연에 의해 지속되다가 즐거움과 몰입, 반복이라는 놀이적 특성을 띄며 발달한다. 이때 교사가 영아의 놀이적 욕구를 잘 파악하고 영아가 보내는 신호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수록 놀이 수준이 높아지고 놀이 시간이 길어져서 영아의 놀이 발달이 촉진된다. 예로 창가에 붙여놓은 뽁뽁이에 관심이 생긴 영아가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뽁뽁이 누르기를 반복하며 즐기는 모습이 이에 속한다. 한편 언어는 영아가 세상과 교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말을 못하는 영아들도 웅얼이라는 형태로 양육자와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게 된다. 영아기에는 수용 언어를 시작으로 표현 언어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언어 폭발의 시기이다. 영아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성으로 인해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교사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차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언어를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언어 놀이 또한 영아가 자발적으로 즐기는 놀이라는 점에서 기능 놀이의 한가지로 볼 수 있다.

3) 상징놀이

영아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며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 교사와 함께 놀이하면서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된다. 2세 이전의 영아들은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보다는 혼자 놀이를 더 많이 하지만 또래의 놀이를 관찰하며 미소를 짓는 등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보인다. 교사는 또래에게 보이는 관심을 긍정적으로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1세 후반에서 2세 초반이 되면 영아는 상징 놀이를 시작하는데 이 때 '상징적 표현'을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경험한다. 상징놀이는 영아의

구체적인 사고력을 추상적인 사고력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자연스럽고 매우 효과적인 놀이 형태이다. 예로 베개를 이용한 엄마 놀이를 생각할 수 있다. 아이가 엄마 놀이를 하려고 인형을 찾다 못 찾아서 평소 베고 자던 베개를 인형으로 정하여 아기 대하듯 안고, 엮고, 우유 먹이는 흉내를 낼 수 있다. 이때 영아의 엄마 놀이 경험은 베개를 있는 그대로 침구류의 하나로 생각하던 구체적 사고력에서 베개를 아기로 대우하는 추상적 사고력으로서의 발달을 가져온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 관찰을 토대로 영아의 상징놀이를 발달적으로 의미 있고, 보다 즐거운 경험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구성놀이

구성놀이는 놀이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해체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놀이로 블록 구성을 들 수 있다. 영아의 블록 놀이는 크고 가벼운 재질인 종이, 스펀지, 우레탄 등으로 만든 블록을 이리저리 나르고, 쌓고 부수고, 늘어뜨리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연령과 상관없는 경우도 있으나 더 발달된 블록놀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패턴과 균형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구성물을 만들어낸다. 교사는 영아의 구성 놀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에 적합한 블록을 준비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블록을 쌓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한다. 영아 경우,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고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놀이의 반복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 교사는 이런 영아의 반복적인 블록 놀이 과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해주고 비언어적인 표정 등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가 구성한 블록을 사진으로 찍어 눈높이에 맞게 게시함으로 영아 스스로 놀이를 통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Ⅲ

시간제보육 특성에 따른 영아 적응

(한국보육진흥원(2015). 시간제보육 영아 초기 적응 및 상호작용 내용 재구성함)

1. 낯선 환경에서의 영아 반응 이해하기
2. 시간제보육에 적응하기
3. 신입 영아와 관계 형성하기

01 낮선 환경에서의 영아 반응 이해하기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은 정규보육이 아닌 비정규 보육과정으로 간헐적인 등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처음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오랜만에 참여하는 영아 경우,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주 양육자와 분리될 때 날카로운 울음이나 거친 발버둥 등의 표현으로 격렬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은 영아의 반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영아가 낮선 환경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영아가 낮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영아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다.

가. 영아의 낮가림

영아는 낮선 사람, 낮선 환경을 접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대체로 영아는 7개월 이전까지는 자신의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도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거나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성인이 돌보는 것에 특별한 반응이 없다. 그러나 7개월 전후부터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접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긴장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주 양육자가 아닌 낮선 사람들을 보거나 자신이 주로 양육되는 가정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을 만나면 저항하거나 우는 행동을 한다. 이는 영아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낮선 환경’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7개월 이상의 영아는 낮선 사람, 낮선 환경을 만나면 몸을 움츠리며 긴장하거나 울면서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첫 방문 시 영아가 울거나 저항하는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나. 영아의 분리불안

7개월 이전의 영아는 대부분 주 양육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겨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영아가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가 자신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주 양육자와 다른 성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개월쯤 되면 영아는 자신을 돌봐주던 주 양육자가 자신을 떠나는 상황을 매우 싫어하게 된다. 자신의 시야에 주 양육자가 보이지 않으면 주 양육자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밀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등의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강하게 거부하는 ‘분리 불안’은 대체로 몇 달 동안 지속되는데, 그 기간은 영아마다 다르다. 영아의 분리 불안은 주 양육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잠시 후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주 양육자가 영아 자신을 버리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영아들이 부모나 주 양육자와 헤어질 때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리 불안 행동은 다음과 같다.

주 양육자와 분리 시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

- 영아는 주 양육자와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강하게 저항한다. 격렬하게 울면서 떠나는 주 양육자를 붙잡거나 매달리는 행동을 한다.
- 주 양육자가 인사하고 떠날 시점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주 양육자가 주변에 없음을 이내 깨닫고 매우 슬퍼한다.
- 교사의 위로나 놀이 제안으로 잠시 울음을 멈추지만 문 앞으로 가서 어머니 주 양육자를 찾는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자신의 어머니 양육자이기를 기대하며 문을 향한다.

교사는 이와 같은 영아의 ‘낮가림’과 ‘분리 불안’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 파악과 영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영아의 불안과 분노를 위로하여 영아가 안정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02 시간제보육에 적응하기

처음으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영아의 특성을 토대로 영아가 안정적으로 주 양육자와 헤어지고 교사 및 시간제보육이 제공되는 기관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아 초기 적응을 위한 고려사항

- 교사는 영아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주 양육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적응 과정을 계획하고 안내한다.
교사는 영아기는 기질적으로나 발달적으로 개인차가 매우 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아를 잘 관찰하여 기질과 특성에 적절한 적응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놀잇감이나 상황에 흥미가 많아 적극적으로 탐색 행동을 보이는 영아라면 영아가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면서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는 적응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조심성이 많고 소극적인 영아라면 주 양육자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육실과 낯선 교사를 눈으로 탐색하여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적응 과정을 계획한다.
- 교사는 처음 만나는 영아의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는 낯선 것에 대해 스스로 익숙해질 때까지 거부 및 저항 행동이 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것을 충분히 탐색하여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교사는 영아와 간접적인 접촉을 시작으로 점차 직접적인 접촉을 늘려가면서 영아와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영아가 교사는 재미있는 놀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주 양육자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면, 교사는 점차 영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려가면서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시도한다.

나. 영아 초기 적응과정 단계

처음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경우,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영아의 개인적인 특성 및 주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영아의 적응 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영아의 적응을 위해 주 양육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영아의 적응 과정에 대해 주 양육자에게 안내하고 구체적인 협조 사항을 전달한다. 영아 초기 적응 과정 단계를 토대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인사 및 안내하기
2단계	영아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찰하기
3단계	영아와의 관계 형성하기
4단계	주 양육자와 분리하기
5단계	영아 적응 행동 확인하기

○ 1단계: 인사 및 안내하기

교사는 처음 등원하는 영아와 주 양육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주 양육자에게 시간제보육 이용 및 적응과정에 대해 안내하면서 주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영아가 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교사

- 영아는 처음 보는 교사에게 낯가림을 하므로 급하게 영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보다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
- 주 양육자에게 시간제보육 관련 안내 사항 전달하기
- 주 양육자에게 낯선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아의 예상되는 반응(울음, 저항)을 전달하여 영아의 부정적인 반응에 당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양육자 무릎 위나 옆에 앉도록 하여 낯선 환경에서 안정 취하기 • 주 양육자 옆에서 놀잇감 탐색하거나 놀이하기 • 교사와 주 양육자의 의사소통 상황 관찰하기
주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 및 영아의 적응과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 질문하기 • 주 양육자는 시간제보육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거나 서명을 할 때 옆에 영아를 앉혀서 아직 모든 환경이 익숙해지지 않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2단계: 영아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찰하기

교사는 주 양육자에게 영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영아의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그날 영아의 기분이나 영아를 돌보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며 영아가 선호하는 놀잇감이나 놀이 특성을 파악한다.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영아와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 • 주 양육자로부터 영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 습득하기 • 영아와 직접적인 눈 맞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영아의 놀이 관찰하기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양육자 무릎 위나 옆에서 안정적으로 탐색 및 놀이하기 • 교사와 주 양육자의 의사소통 상황 관찰하기
주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질문에 따라 영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기 • 영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 영아가 자신 앞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영아의 놀이 격려하기

○ 3단계: 영아와의 관계 형성하기

교사는 주 양육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와 영아 놀이 관찰을 토대로 영아가 흥미를 느낄만한 놀이를 시도한다. 단, 교사는 영아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교사 혼자 놀이를 시도하거나 적용된 다른 영아와 놀이함으로 신입 영아가 그 모습을 보고 교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영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아가 교사의 놀이 관찰하게 하기 • 영아가 흥미를 느낄만한 놀이를 매우 재미있게 즐기기 • 영아가 교사의 놀이를 바라보며 관심을 보이면 영아를 초대하거나 놀잇감을 권유하는 등 직접적인 접촉 시도하기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교사에게 호의적인 관심가지기 • 교사의 놀이를 바라보거나 자신의 놀이를 하다가 종종 주 양육자의 존재 확인하기 • 다른 영아의 놀이나 놀잇감 등에 흥미가지기
주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주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눈 맞춤을 시도하는 경우, 긍정적인 반응으로 영아 안심시키기 • 영아의 놀이를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에서 최대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하기 • 주 양육자는 영아와 함께 직접 놀이하지 않기

○ 4단계: 주 양육자와 분리하기

교사는 영아가 주 양육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이에 집중하여 주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동이 처음보다 줄어들면 분리를 시도한다. 이때 주 양육자는 영아에게 ‘인사’ 함으로 영아가 분명히 주 양육자가 떠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주 양육자와의 분리 준비하기 • 영아에게 주 양육자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주 양육자는 영아에게 반드시 인사하고 떠나도록 알려주기 • 영아의 울음이나 저항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울음 등으로 분노와 슬픔 표현하기 • 교사의 위로를 토대로 안정감을 회복하는 방법 찾기
주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안내에 따라 영아와 인사하고 보육실 떠나기 (영아가 심하게 울더라도 반드시 이별 인사를 하고 절대로 영아 몰래 사라지지 않아야 함. 부모가 영아 몰래 떠날 경우, 영아는 부모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모를 찾으며 안정감을 찾기 힘들.) • 인사하고 떠난 다음에는 영아가 심하게 울더라도 최대한 다시 보육실로 들어오지 않기 • 영아의 상황이 걱정되는 경우, 보육실이나 어린이집 밖에서 전화로 영아의 상태 확인하기

○ 5단계: 영아 적응 행동 확인하기

주 양육자가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사의 위로를 통해 안정을 찾은 영아는 놀이에 집중하면서도 종종 다시 주 양육자를 찾는 행동을 한다. 교사는 영아가 지속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격려함으로써 놀이를 통해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놀이 도중 불안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 주 양육자가 없어서 속상하고 슬픈 영아의 기분을 말로 이야기 해주면서 영아의 기분을 인정해주고 위로하기 •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놀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안내하여 영아가 놀이에 집중하도록 하기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 있는 놀이를 찾아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주 양육자가 떠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 충분히 표현하기 • 주 양육자가 떠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에 대해 교사로부터 위로받고 안정감 취하기
주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곧 진정되고 안정적으로 보육될 것을 믿기 • 영아의 상태가 궁금한 경우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다. 적응을 위한 영아 지원

○ 안아주기

부모와 헤어진 영아를 달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안아주는 것으로, 교사가 영아를 안고 영아의 등을 쓰다듬거나 토닥이면서 영아의 슬픔을 위로한다. 교사가 일정 시간동안 영아를 안아주어 영아가 안락함과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영아의 슬픔과 분노가 점차 진정된다.

○ 영아의 기분 말로 표현해주기

영아가 부모와 헤어지는 것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을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영아 대신 말로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영아의 감정을 공감해 준다.

“엄마가 가셔서 너무 속상하구나”

“엄마가 금방 ○○ 데리러 오신대”

“○○엄마! ○○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랑 놀이하고 있으면 엄마가 ○○ 데리러 오신대”

○ 부모의 물건이나 영아의 애착물 활용하기

영아가 평소에 사용하는 인형이나 담요와 같은 애착물이 있다면 그 애착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품에 안고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는 부모의 사진이나 부모의 물건 중 하나를 남겨두도록 하여 영아가 부모의 물건을 통해 안정감을 취하도록 한다. 영아는 부모의 사진을 보면서 슬픔이나 분노에 대해 위로받기도 하고 부모의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부모가 곧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부모 찾기 까꿍 놀이

영아들이 흥미를 보이고 즐기는 놀이 중 하나가 ‘까꿍 놀이’이다. 부모를 찾고자 하는 영아의 욕구를 반영한 ‘부모 찾기 까꿍 놀이’를 통해 영아의 욕구를 충족하고 까꿍 놀이의 즐거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불안과 슬픔을 해소할 수 있다.

- ① 교사는 영아와 함께 보육실 또는 기관의 다른 장소 등을 둘러본다.
- ② 이때 다음과 같은 말로 부모를 찾고자 하는 영아의 마음을 읽어준다.
 - “뚝뚝! 여기 ○○엄마가 있나요?”
 - “엄마가 있는지 문을 열어볼까?”
 - “○○엄마 여기 계세요?”
- ③ 문을 열어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여기는 안 계시나 보다. 어디에 계실까? 하면서 다른 문을 다시 탐색하도록 한다.
- ④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영아는 점차 까꿍 놀이에 집중하여 부모를 찾기보다 까꿍 놀이를 즐기면서 안정감을 취하도록 한다.

○ 부모에게 전화 걸기

영아가 심하게 울거나 불안해할 때 “엄마에게 빨리 오시라고 전화하자” 라는 제안은 영아를 진정시킬 수 있다. 교사는 전화하는 흉내 놀이를 통해 부모가 반드시 영아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고, 영아는 부모가 전화를 받으면 빨리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 ① 교사는 모형이나 실물 전화기를 이용해서 엄마에게 전화하는 흉내를 낸다.
- ② 부모와 전화하는 흉내를 내면서 영아에게 부모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엄마! 여기 다람쥐 반인데요 ○○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빨리 오시래요”

“아~네. 일 마치면 빨리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가 재미있게 놀이하고 있으면 빨리 오신다고요!”

- ③ 부모가 데리러 온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놀이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엄마가 빨리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서 ○○놀이해 볼까?”

○ 또래나 놀잇감 소개하기

부모와 헤어지고 난 후 영아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 보육실 내의 다른 또래가 놀이하는 모습이나 영아가 흥미를 보일만한 놀잇감을 소개하여 영아를 진정시킨다.

- ① 우는 영아를 안고 토닥이면서 또래의 놀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영아용 놀잇감을 가리키며)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저기 ○○친구가 피아노를 치니까 땡땡 소리가 나는구나 ”

“(까꿍 놀잇감의 버튼을 가리키며) 이 동그라미를 꾸욱 눌러볼까?”

“우와! 동그라미를 누르니까 강아지가 까꿍! 하고 나왔네”

“그 옆에 세모를 누르면 무엇이 나올까?”

- ② 영아가 또래의 놀이 모습이나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면 그 놀이에 참여하도록 한다.

○ 장소 바꾸기

영아가 보육실에서 주 양육자와 헤어졌기 때문에 보육실 내에서는 쉽게 울음이나 저항이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영아를 데리고 보육실 밖으로 나가 다른 장소에서 놀이를 권유해 보거나, 기관 밖으로 나가면 영아는 주 양육자를 찾으러 간다고 이해하여 진정 될 수 있다. 보육실 밖이나 기관 밖으로 장소를 이동한 경우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들에 대해 영아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주변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돌리도록 하면 효과적으로 영아를 진정시킬 수 있다.

라. 주 양육자의 적응 돕기

일반적으로 시간제보육에 영아를 맡기는 주 양육자들은 영아가 울고 힘들어할 것에 대한 불안감과 주 양육자와 헤어지기를 거부하는 영아를 맡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쉽다. 이런 주 양육자의 불안감과 죄의식은 영아에게 영향을 미쳐 영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 양육자가 시간제보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음에 제시한 지침을 토대로 주 양육자를 안심시키고 주 양육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 시간제보육의 목적 및 운영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및 교사를 신뢰하도록 한다.
- 등원하자마자 주 양육자와 영아가 헤어지도록 하기보다는 영아가 보육실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주 양육자와 영아가 함께 보육실에 머물도록 한다. 이 시간에 교사는 주 양육자로부터 영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영아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보육을 제공한다.
- 영아와 헤어질 때 주 양육자가 반드시 인사하도록 알려주어 주 양육자와 인사하기 행동이 일련의 주 양육자와의 이별 의식이 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이별 의식이 영아에게 주 양육자와의 헤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알려 주어 양육자를 안심시킨다.
- 귀가 시 주 양육자가 영아를 만나면 주 양육자와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낸 영아의 행동을 격려하도록 함으로써 다음번 시간제보육 이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한다.
- 귀가 후 집에서 영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도록 안내한다. 즉,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엄마 품에 오래 안겨있거나 엄마와 함께 동화책을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 이더라도 교사와 주 양육자는 영아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시간제보육이 제공됨을 주 양육자에게 알린다.
- 주 양육자에게 영아의 보육활동 및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주 양육자가 시간제보육 및 교사를 신뢰하도록 한다.

마. 신입 영아의 적응을 돕기 위한 환경 구성

영아가 최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면 종종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다. 다음은 신입 영아 적응을 도와주는 환경 구성 시 고려한 사항이다.

-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형겅 인형, 담요 등 패브릭 제품을 활용하여 영아가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 집이 아닌 장소에서 생활을 하게 된 영아는 긴장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집처럼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아가 누워서 텅굴 수 있는 매트, 안고 다니며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패브릭 인형이나 담요 등이 효과적이다. 또는 영아가 개인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애착 물건’이 있다면 사전에 주 양육자에게 안내하여 애착 물건을 가지고 등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영아가 불안해할 때마다 애착 물건을 활용한다.
- 시간제 보육실 입구에 어항 등을 비치하여 영아가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영아를 달래기 위해 움직이는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면 영아가 쉽게 진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육실 입구에 어항 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영아의 사진이나 영아의 가족사진을 준비할 수 있다면 영아가 등원하는 날에 보육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영아가 보육실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는 자신의 사진이나 가족사진이 비치되면 보육실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아가 등원할 때 가지고 온 영아의 개인 소지품 가방을 넣는 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영아의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장을 살펴보면서 영아 물건이 시간제 보육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 시킴으로써 영아가 시간제 보육실에 대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실 입구에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비치한다. 처음 등원하거나 오랜만에 등원한 영아들이 보육실 입구에 비치된 흥미로운 놀잇감을 발견하고 놀잇감을 조작하는 등 놀이를 시작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적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아들이 선호하는 놀잇감인 까꿍 놀잇감, 소리 나는 놀잇감, 영아들이 좋아하는 인형 등은 보육실 입구에 위치에 놓는 것이 좋다.
- 보육실을 최대한 밝고 예쁘게 꾸며 영아가 보육실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한다. 밝은 파스텔 톤의 벽지나 구조물, 아름다운 그림이나 벽걸이 등을 이용하여 밝고 포근한 분위기의 보육실은 영아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적응에 도움이 된다.

03 신입 영아와 관계 형성하기

시간제보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와의 첫 만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만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는 영아와의 ‘거리’, ‘간접 접촉’, ‘시간’ 3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 교사가 신입 영아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거리, 간접 접촉,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Far West Laboratory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1988).

가. 영아와 일정한 거리 유지하며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

- 교사는 주 양육자와 영아에게 반갑게 인사하지만, 가능한 영아와 직접적인 눈 맞춤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반적으로 영아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낯가림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주 양육자와 눈을 맞추며 영아와 주 양육자를 환영하는 교사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최대한 반갑게 인사한다.
- 미리 준비한 영아용 놀잇감을 주 양육자를 통해 영아에게 건네어 교사와 주 양육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영아는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교사는 주 양육자와 영아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영아와는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나 영아가 교사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영아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교사가 앉는 것이 좋다.
- 교사는 주 양육자와 최대한 친밀한 분위기로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교사와 주 양육자의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영아의 낯선 곳에서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영아는 주 양육자와 교사가 친밀하다고 판단되면 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다소 낮출 수 있다.
- 영아는 대체로 낯선 교사를 궁금해하며 교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영아는 낯선 교사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낯가림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므로 교사는 최대한 영아와 눈 맞춤은 피하되 영아가 교사 자신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영아와 간접적인 접촉 시도

- 영아가 낯선 보육실과 처음 만나는 교사 및 또래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영아 주변에 있는 놀잇감을 탐색하거나 조작하면서 놀이를 시도한다. 또는 주 양육자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궁금한 것들을 탐색하기도 하고 교사와 다른 또래들의 놀이

행동에 관심을 보인다. 이때 교사는 영아와의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영아가 이와 같은 행동 및 반응을 보일 때까지 교사는 영아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교사는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다. 이때 최대한 즐겁고 재미 있게 놀이하여 영아가 교사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만약 주변에 적응된 다른 영아가 있다면 그 영아들과 즐겁게 놀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영아는 교사가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충분히 봄으로써 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고 교사가 진행하는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 교사의 놀이에 흥미를 갖게 된 영아는 교사의 놀이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교사 쪽으로 접근하거나 교사의 놀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진다. 영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교사는 영아에게 교사 자신이 놀이하던 놀잇감을 건네면서 놀이에 참여해 보도록 권유한다.
- 교사의 놀이 권유에 영아가 응한다면 영아는 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영아와의 직접적인 눈 맞춤은 최소화해야 한다. 즉, 교사의 눈은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영아에게 놀이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인 간접적인 접촉을 한다.

다. 영아와 직접적인 접촉 시도

- 교사가 권유한 놀이에 영아가 집중하며 즐거워한다면 놀이 방법을 점차 확장하거나 새로운 놀이 방법을 소개하여 영아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가 놀이에 집중하면 교사는 영아의 놀이 행동 격려하기, 새로운 놀이 방법 알려주기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접촉을 조금씩 직접적인 접촉으로 바꾸어본다. 이때도 교사는 영아의 반응에 따라 천천히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 교사가 영아의 등 뒤편이나 영아와 옆자리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영아와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는 자세를 취하면 영아는 아직 친숙하지는 않지만 호감을 갖게 된 교사와 편안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와 놀이를 통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늘려가지만, 영아가 교사의 신체적 접촉에 긴장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천천히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교사가 영아를 안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는 영아도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영아도 있기 때문이다.

라. 영아와 친밀한 접촉 늘리기

- 교사는 영아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 놀이에 대한 영아의 흥미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놀이를 지원하며 영아가 놀이에 참여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영아 스스로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교사가 같이 재미있게 놀아주고 새로운 놀잇감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면 영아의 놀이 시간을 길게 유지될 수 있다.
- 영아가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사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어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아 발달 수준에 적절한 놀이와 놀잇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제보육 교사는 영아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아의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놀이 지원을 늘림에 두어야 한다.
- 영아가 교사와 놀이를 하지만 아직 교사를 완전히 믿고 따르는 친밀한 관계 이전 단계이므로 놀이 중 종종 주 양육자를 찾거나 불안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영아가 주 양육자를 찾거나 불안 등을 표현하는 경우 교사는 영아의 욕구와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고 위로한 후 다시 영아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놀이를 소개한다.

IV

시간제보육에서의 교사 상호작용

1. 상호작용을 위한 일반적 원리
2. 영아 놀이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초

01 상호작용을 위한 일반적 원리

상호작용은 개별 주체들과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므로 모든 상호작용 상황에 꼭 들어맞는 정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가 영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개별 영아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반응을 주고받을 수는 있다. 보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안경자 등, 2018)

가.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원리

○ 관심 보이기

- 영아가 관심 갖고 탐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 영아의 욕구에 관심을 보인다.
- 영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보인다.
- 영아의 반응에 관심을 보인다.

○ 애정 표현하기

- 신체 접촉을 통한 애정을 표현한다(영아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에는 금물).
- 수용적인 눈빛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 칭찬과 격려의 말로 애정을 표현한다.
- 영아가 필요로 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보일 때 애정을 표현한다.

○ 인정하기

- 영아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현재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
- 영아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이해하며 인정한다.
- 영아를 독립된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한다.
- 서로 다른 문화와 신체적 조건 등 영아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 격려하기

- 영아가 성취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으로 격려한다.
- 영아가 경험한 과정에 대해 격려한다.
- 영아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격려한다.
- 영아의 작은 개선점에 대해서 격려한다.

○ 질문하기

- 지금 영아가 하고 있는 행위에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한다.
- 영아의 관점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질문한다.
- 다른 관점이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질문한다.
-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방식의 질문을 지양한다.

○ 반응하기

- 영아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한다.
- 영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언어적으로 반응한다.
- 눈 맞춤이나 미소, 끄덕임, 온화한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것으로 반응한다.
- 영아들의 감정과 생각을 반영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영아들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태도로 반응한다.

나. 일과에 따른 상호작용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정해진 몇 시간을 제공기관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각 개별 영아 입장에서 보면 등원과 하원 그리고 배변과 기저귀 갈이 등의 일상생활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놀이와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영아와 일과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는 시간제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일과에 따른 상호작용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등·하원

등원 시간은 주 양육자와 영아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높은 시간에 속하는데, 간헐적으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영아가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하며 엄마와 떨어지기를 거부하고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교사는 보호자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영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너그럽게 수용해야 한다. 빨리 울음을 그치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고 영아의 울음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수용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 공감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영아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교사를 신뢰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가 선호하는 장난감이나 가족의 사진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토닥여주거나 안아 달래주는 등 따뜻하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원 시 교사는 영아에 일과에 대해 주 양육자님께 간략히 알리고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즐거운 놀이 경험을 강조해서 말한다. 이때 영아에게도 오늘 잘 지낸 모습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다음번에 또 재미 있게 놀이하자는 이야기로 하원 지도를 마무리한다.

등원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영아에 대한 교사의 언어적 반응의 예

“OO이가 엄마랑 헤어져서 마음이 힘들구나.”
“그래, 슬프지. 슬플 때는 울어도 돼.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옆에 있을게.”
“선생님이 이렇게 손잡아 줄까?”
“OO이가 잘 놀고 있으면 엄마는 약속한 시간에 꼭 오실 거야.”
“OO아~오늘 OO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나왔네. 이제 눈물 닦고 먹어볼까?”
“OO이가 들고 온 이건 뭘까? 아~OO이가 잠잘 때 안고 자는 곰돌이구나”

○ 배변과 기저귀 갈기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근육과 신경은 생후 6~7개월을 전후에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만 이때는 아직 괄약근 조절이 불가능하다.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적당한 시기는 영아마다 다르다. 대소변 훈련은 일단 괄약근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대소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며, 영아의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다. 교사는 개별 영아의 신체적 발달 상태와 의사소통 정도, 심리적 안정감 등을 잘 살피면서 배변을 도와 주어야 한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영아라면 행동이나 표정 등을 수시로 살피서 너무 늦지 않게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한다. 기저귀를 갈 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영아의 몸을 잡아끌거나 기저귀 갈이대에 눕히지 않도록 하며 기저귀 갈이를 할 것임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고 기저귀를 가는 중에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저귀 갈이를 위해 매트에 누워있는 영아에 대한 교사 반응의 예

“OO아~ 선생님이 OO이 응가한 거 얼른 갈아줄게.”
“어디 보자. 우리 OO이가 응가를 아주 잘 했구나.”
“자~ 다행네. 선생님이 기저귀 갈아주니까 기분 좋지?”

다. 인권 존중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영아에 대한 존중의 정도는 하루일과 중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영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보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화된 말투와 표현, 혹은 표정 없는 얼굴이나 거친 행동 등이 영아들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의 기질과 생활리듬, 특정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각 영아의 놀이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며 이를 고려한 상호작용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현재 기분과 처해 있는 상황 및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7).

영아 인권을 존중하는 경우

- 영아의 이름 부드럽게 부르기
- 영아와 눈높이 맞추기
-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 짓기
- 부드럽게 스킨십하기(안아주기, 토닥이기, 등 쓸어주기, 손 잡아주기 등)
- 영아의 이야기 주의 깊게 듣기
- 영아의 실수 이해하기
“OO이가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 영아의 의견 수용하기
“아~ 이런 방법도 좋은 생각이다.”
- 영아의 기분 읽어주기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그냥 가버려서 속상하구나?”
- 영아의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기

영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 영아를 '야! 너! 예!' 등으로 부르기
- 대화 시 얼굴 쳐다보지 않기
- 영아의 요구 못 들은 척 하기
- 짜증 내는 말투와 표정 짓기
- 영아의 팔 잡아당기기
- 성 차별적 내용으로 말하기
“남자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일어나”
- 성별로 구분해 놀잇감 제공하기
“자동차는 남자 친구가 하고, 우린 인형놀이 하자”
- 비난조로 말하기
“또 썼어?”, “맨날 울기만 하니?”

02 영아 놀이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초

(한국보육진흥원(2015). 시간제보육 영아 초기 적응 및 상호작용 내용 재구성함)

놀이를 강조하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교사의 역할이 놀이 계획과 실행자로서의 의미가 강했다면,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 교사 역할은 영아의 흥미에 기초한 놀이를 관찰하고 그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되었다. 이에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에서도 교사의 영아 놀이 지원은 매우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 되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아의 놀이를 지원해야하는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의 교사들은 정서, 신체, 언어 등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지원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전문적인 교사의 지원은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영아가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교사는 영아의 신호를 잘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면서 영아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Wittmer & Petersen, 2011). 교사의 놀이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초를 살펴본다.

가. 영아의 정서 공감

영아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편하게 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영아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영아가 불편해하는 것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이때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사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공감은 영아가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교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교사가 영아에게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공감의 형태로 우선 교사의 즐겁고 기분 좋은 태도, 영아에게 하는 친절한 말과 부드러운 신체 접촉을 들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다.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따뜻하고 심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긍정적인 공감을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영아의 정서 파악에 있어 많은 교사가 기쁨, 행복,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수용하면서도 슬픔, 분노,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거부하고 교정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부정적 표현을 무조건 지도하거나 바꾸어보려 하기보다 수용한 후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영아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영아의 분노 이해

영아는 발달 특성상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억지를 쓰거나 때를 부리기도 한다. 영아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출할 때가 있는데 이때 영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평온함을 찾기는 힘들다. 즉 영아는 성인의 도움 없이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아가 불쾌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할 때 교사는 영아를 위로하여 진정시켜야 한다. 한편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빨리 진정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영아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예로 어떤 영아는 등을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듯이 위로하고, 어떤 영아는 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분노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거나 영아가 물에 손을 씻을 수 있게 하면 주의가 전환되기도 한다. 그 외 ‘까꿍 놀이’, 물 마시기, ‘문이나 서랍 열어보기’, ‘놀잇감 조작해보기’ 등 영아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놀이를 하나씩 소개하여 영아의 관심과 흥미를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이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영아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다. 영아의 속도 파악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영아는 발달 특성상 언어로 분명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영아의 행동과 반응을 매우 민감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영아가 시도하는 반응이나 행동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반응을 시도함으로써 영아의 신호가 교사 생각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아의 신호를 파악하였다면 영아의 속도를 파악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영아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에 자기만의 신호로 반응하기 때문에 교사는 영아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속도로 반응에 따라야 한다. 영아의 행동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아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영아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영아의 요구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가 영아에게 질문한 경우, 영아가 표정이나 행동, 눈빛으로 대답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영아와 함께 춤을 춘다는 마음으로 상대의 스텝 속도를 존중하여 내 마음대로가 아닌 상대의 속도를 배려해야 한다.

라. 영아의 강점 주목

영아와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영아가 새로운 사물을 집중하여 탐색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영아가 자신이 의도한 탐색 활동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교사에게 인정받게 될 때, 영아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뿐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는 교사를 신뢰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영아가 애써 시도한 것을 주목하여 피드백하고, 타고난 것이나 막연한 칭찬은 피한다. 예를 들어 “아주 높이 떨어 수 있구나”, “블록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네”, “한 손으로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어?” 같은 영아의 노력과 시도를 칭찬하고 “훌륭해”, “멋져”, “착해” 와 같은 가치 판단적이고, 격려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지양한다. 또한 “예쁘게 생겼네”, “귀엽구나” 등의 타고난 외모에 대해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마. 영아의 행동 모방

교사가 영아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 영아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영아가 시도하는 탐색 행동을 격려하는 일이다. 영아는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한 교사에게 친밀감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만난 영아와의 놀이에서 교사가 영아의 놀이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영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 행동을 모방하면서 “선생님이랑 OO이랑 똑같네”, “OO 이는 이런 모양이고, 선생님은 이런 모양이구나”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영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자신의 탐색을 격려받은 영아는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V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의 실제

1.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부분 활용방법
2.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실의 환경구성

01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부분 활용방법

- 기존 시간제보육 프로그램(2014)에 수록된 총 220개의 적응프로그램과 보육프로그램 활동들은 현장에서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활동의 경우 교사가 먼저 활동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아의 자발적 선택과 경험을 인정하면서 놀이를 관찰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간제 보육실에 배치되어있는 플라스틱 중심의 장난감이나 놀이도구 이외에 계절별로 다양한 실물자료, 자연물, 오감놀이자료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놀이를 지원하는 환경구성에 초점을 둔 놀이 구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실의 환경구성 및 운영 예시는 계절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환경구성 및 놀이 운영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놀이 사례마다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놀이확장, 교사의 놀이 지원 시 유의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이 내용을 숙지하여 영유아중심·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구분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각 놀이마다 별도의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놀이와 활동의 수준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아가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놀이지원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0~1세의 경우에는 제시된 놀이에서 오감 각을 활용한 놀이자료 탐색을 중심으로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다. 놀이자료의 제시나 지원방법, 유의점 등에서 어린 영아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 **놀이자료 제시**
 - 시간제 보육실 이용 사전예약 영아의 개별 특성이나 사전경험, 계절 등을 반영하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이자료를 제시한다.
- **놀이자료 지원 Tip**
 - 교사가 사전에 놀이자료를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나 중요한 점 등을 안내하고, 관련 사진을 함께 제시한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 2가지를 제시하고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정과 교사의 놀이지원 내용을 기술한다.

놀이확장

- 제시한 놀이사례 이외에 놀이확장으로 가능한 놀이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시한다. 놀이확장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지속되거나 자연스럽게 확장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사가 의도적으로 놀이확장까지 유도할 필요는 없다. 영아의 놀이확장은 하루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날 또는 다음 달에 나타날 수도 있다.
- 유사한 놀이사례가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해설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가 어떻게 영아의 놀이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전 또는 놀이과정에서 놀잇감이나 놀이자료를 제공할 때의 유의점 등을 제시한다.

02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실의 환경구성

○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실의 환경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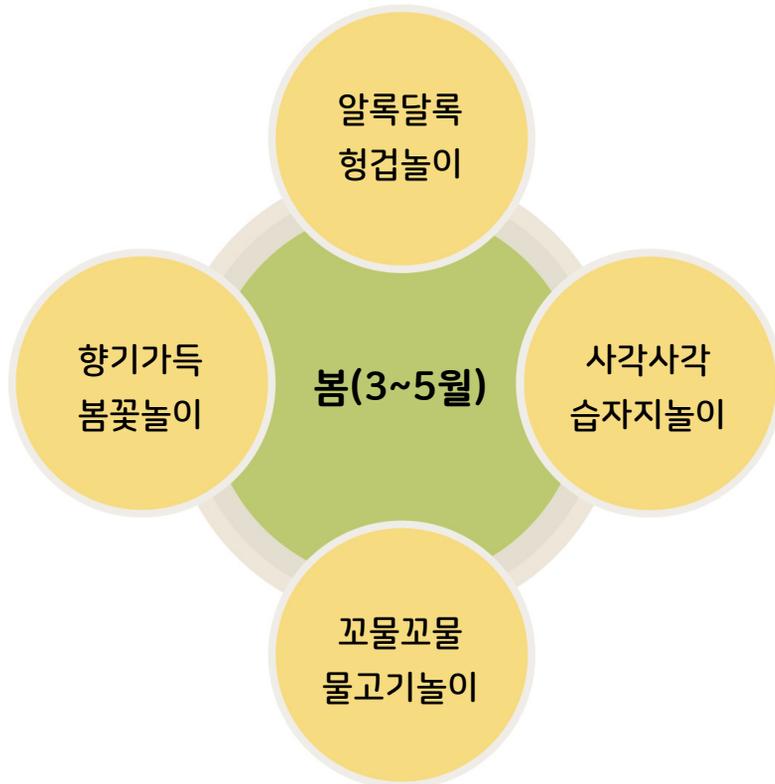
- 시간제 보육실은 생후 6~36개월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구성을 하여야 한다. 0~1세 영아는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변 탐색과 자신의 신체 탐색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을 발전시켜 나가고, 2세 영아는 감각능력을 활용하면서 신체 움직임이 커지고 신체활동을 즐긴다. 따라서 시간제 보육실은 영아가 편안하게 오감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자료에 반응하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놀이공간을 확보해주고, 오감각을 이용한 놀이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시간제 보육실은 0~2세 영아가 함께 이용하면서 주로 1세 영아가 많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1세 보육실의 흥미영역을 기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역할 및 쌓기놀이영역 등으로 구성한다. 영아들이 놀이하면서 상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블록류, 인형류, 역할놀이 소품, 소꿉놀이류, 그림책, 종이류, 필기구류(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등의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다양한 놀이자료를 기존의 흥미영역 명칭으로 구분한 교구장에 비치하는 대신, 영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인형놀이 영역, 블록놀이영역, 소꿉놀이영역, 그림책영역 등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 놀이영역 이외에 계절에 어울리는 오감놀이자료를 이용한 오감놀이영역을 구성하여 시간제 보육실에 오는 영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겔놀이영역, 물고기놀이영역 등을 구성하도록 한다.
- 이외에도 시간제 보육실에 사전 예약한 영아들의 놀이 특성이나 선호하는 놀이를 반영하여 그때그때 놀이영역을 달리 구성해 줄 수도 있다. 놀이는 주로 바닥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바닥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영아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교구장은 벽 쪽으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놀이공간 이외에도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쉬고 싶은 영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한다.

VI

놀이 운영의 실제

1. 봄(3~5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2. 여름(6~8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3. 가을(9~11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4. 겨울(12~2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01 봄(3~5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알록달록 형겅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다양한 색깔과 재질의 형겅 자투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깔과 재질의 형겅 자투리를 인근 시장 등에서 얻거나 가정에서 작아진 옷 등을 기증받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서 제공하거나 옷 모양 그대로 제공할 수도 있다. • 계절에 따라 형겅의 두께나 재질을 고려하여 다르게 제공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알록달록 꽃을 연상하여 화사한 색상의 일반 두께로 된 형겅을 제공할 수 있다. 겨울에는 폭신평신향고 두꺼운 재질의 형겅을 제공할 수 있다. 만2세 영아에게는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름을 느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두께와 재질의 형겅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영아가 형겅을 입에 넣을 수도 있으므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형겅 자투리의 특성 상 가장자리 보풀 등을 제거하거나 마감처리(오버로크 등)가 필요인지 확인하여 제공한다.
<p>다양한 필기구류와 물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매직 등 다양한 필기구류와 물감 등을 제공하되, 시간제 보육실에 사전 예약한 영아의 월령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 • 어린 영아의 경우 형겅에 필기구류나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므로 손바닥을 이용하거나 솜공을 이용하여 물감 찍기를 해볼 수도 있다.
<p>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스티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스티커류를 제공할 수 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놀이영역에 다양한 크기와 재질, 색깔의 형겅이 담긴 바구니에 다가간 선우가 형겅을 꺼내어 흔들어본다.

(교사) “선우가 형겅을 흔들어보고 있네.”

(선우) “이케 이케.”

(교사) “선생님도 선우처럼 살랑살랑 흔들어봐야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선우 형겅도 ‘살랑살랑’ 하고 흔들리네.”

옆에 있던 민재가 다가와 투명한 형겅으로 얼굴을 가리고 “민재 없다.”하며 놀이를 한다. 그러자 선우도 민재를 따라하며 “어흥, 나는 호랑이다.” 하고 말한다.

• 놀이상황2

오후에 따스한 햇빛이 비치자, 시간제 보육실에 있던 영은이와 민수가 창가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햇빛을 느껴본다. 교사가 형겅바구니에서 투명한 형겅을 하나 꺼내어 햇빛을 가려주자, 영아들도 각자 형겅을 하나씩 가져와 햇빛을 가리며 즐거워한다.

놀이확장



<출처: 다음 카페 '구립 우정어린이집'>



<출처: 다음 카페 '개나리어린이집'>



<출처: 다음 카페 '전주뽕뽕어린이집'>

향기가득 봄꽃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꽃잎과 자연물	• 봄철, 시간제 보육실 인근에 많이 피는 꽃과 나무를 살펴봄에 떨어진 꽃잎이나 줄기, 열매 등을 모아 제공할 수 있다. 영아들과 함께 산책가면서 주워올 수도 있다.
다양한 필기구류와 종이류	• 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매직 등 필기구류와 도화지나 색종이 등 종이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되, 시간제 보육실에 사전 예약한 영아의 월령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
투명 시트지, 투명테이프, 풀, 가위 등	• 영아들이 도화지나 색종이 위에 꾸민 결과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명 시트지, 투명테이프, 풀, 가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투명 시트지의 끈적이는 부분을 넓게 제공하여 그 위에 꽃잎을 그대로 올려서 붙여보게 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놀이영역에 교사가 사전에 인근에서 주워온 꽃잎이나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바구니에 담아둠. 시간제 보육실에 들어온 영아들이 다가와 관심을 보인다. 꽃잎을 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는 영아, 꽃잎을 집어 코로 가져가 향기를 맡아보는 영아, 나뭇잎과 꽃잎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영아 등 영아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교사) “지윤아, 꽃잎에서 무슨 향기가 나지? 선생님도 한번 맡아볼 수 있을까?”

오후에 시간제 보육실에 온 민호는 선생님이 모아놓은 꽃잎과 나뭇잎을 보더니, 교사의 손을 잡고 문쪽으로 간다.

(민호) “나도 꽃... 나가서...”

(교사) “아, 민호도 밖에 나가서 꽃잎이랑 나뭇잎이랑 주워 올거야?”

(민호) “네.”

• 놀이상황2

다음날 시간제 보육실에 온 영아들이 꽃잎과 나뭇잎이 담긴 바구니를 보더니 꽃잎이 시들어서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교사) “꽃잎이 시들었네. 나뭇잎도 힘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민지) “맘마 줘.”

(교사) “아, 맘마를 줘볼까?”

(시윤) “물도...”

(교사) “그래. 시윤이 말대로 물도 주면 되겠다.”

교사는 오목한 그릇과 투명한 물컵, 물병을 가져다. 그러자 영아들은 시든 꽃잎과 나뭇잎을 그릇과 물컵에 넣고 물을 부어준다. 그러다가 한 영아가 옆에 있던 물병에 꽃잎을 넣기 시작하자, 다른 영아들도 관심을 보인다. 교사는 다른 페트병을 준비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꿈꾸는 하루하루'>

놀이확장





<출처: 네이버 블로그 '꿈꾸는 하루하루'>

- 봄철 철쭉이나 벚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는 시간제 보육실 인근 산책하면서 떨어진 철쭉꽃이나 벚꽃잎을 모아서 도화지 위에 또는 땅바닥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꾸며볼 수 있다. 굳이 도화지가 없더라도 꽃잎과 자연물을 주워 엄마 아빠 얼굴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다. 어린 영아의 경우 벚꽃잎은 크기가 작아 손으로 집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큰 꽃잎이나 나뭇잎을 모아 놀이해 볼 수 있다.
- 페트병 안에 넣은 꽃잎이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탐색하면서 영아들과 신체로 표현해보는 놀이로 진행해 볼 수도 있다.
- 봄 산책에서 발견한 자연의 색깔들을 탐색해보고, 시간제 보육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육실 벽에 붙여두어 변화를 탐색해보게 할 수도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봄에 시간제 보육실 주변에 핀 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향기를 맡으면서 봄과 자연을 느껴보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꽃잎이나 나뭇잎으로 미술활동 결과물을 만드는 데 놀이의 초점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아들의 반응이나 흥미에 따라 놀이를 지원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살아있는 꽃잎이나 나뭇잎을 놀이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꽃잎이나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주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 시간제 보육실 인근에 산책할 장소가 없을 경우 꽃 화분을 준비하여 탐색해볼 수 있다.
- 나뭇가지 등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에게 무조건 “위험해.” “안돼.”라고 하기보다는 영아의 호기심을 인정해주면서 나뭇가지의 잔가지는 찢리면 다칠 수 있으니 선생님이 조심조심 떼어내 줄 수 있다.

사각사각 습자지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다양한 색깔의 습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자지를 원래 크기 그대로 제공하거나 또는 예약된 영아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동물이 있다면 동물 모양으로 제공하여 영아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 
<p>다양한 크기의 신문지 조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지 1장을 8조각 또는 16조각으로 잘라 다양한 크기로 제공한다. 사전에 예약된 영아의 연령을 미리 파악하여 어린 영아가 많을수록 크기를 더 작게 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다.
<p>기타 다양한 재질의 종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껌 종이나 포스트잇, 종이 충전재(선물 속포장재) 등 다양한 재질의 종이를 제공할 수도 있다. 
<p>종이테이프 또는 투명테이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 재질에 따라 손으로 잘 뭉쳐지지 않는 종이충전재 등은 종이테이프나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 영아들이 쉽게 붙이거나 떼 수 있는 종이테이프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다양한 크기의 재활용품 상자, 플라스틱 통, 휴지 속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크기의 재활용품 상자나 플라스틱 통, 휴지 속심 등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때 너무 큰 상자나 통보다는 작은 크기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놀이영역에 다양한 크기와 재질, 색깔의 종이가 담긴 바구니에 다가간 영재가 “이거 뭐야?” 하고 묻는다.

(교사) “이게 뭘까? 영재야?”

(영재) “종이.”

(교사) “그래. 종이가 많이 있네? 영재는 어떤 종이가 좋아?”

(영재) “이거.”

(교사) “아, 노란색 종이가 마음에 들었구나. 이 종으로 무얼 해볼까?”

영재는 노란색 습자지를 한손에 움켜쥐고 흔들어본다. 습자지가 구겨지면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을 즐긴다. 구겨진 습자지를 머리 위로 던져보기도 한다. 옆에 있던 민호가 다가와 종이포장재를 한 움큼 집어들더니 영재 머리 위로 비처럼 뿌린다. 교사도 옆에서 다양한 종이를 비벼서 소리를 내며 함께 놀이한다. 영재는 습자지를 두 손으로 잡아 찢기 시작한다. 교사도 함께 신나게 종이를 길게 찢어보이자, 영아들이 신나게 맘껏 종이 찢기를 계속한다. 영재 머리 위에 올라간 습자지 조각을 민호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 떼주려고 한다.

• 놀이상황2

시간제 보육실 놀이영역에 어제 갖고 놀던 종이조각들을 담아두었더니 한 영아가 조물조물 뭉치기 시작하자, 다른 영아들도 다가와 종이공 만들기에 흥미를 보인다. 교사도 옆에서 종이공 만들기를 같이 한다. 종이포장재를 뭉치던 지원이가 선생님에게 도와달라는 듯 손을 내민다.

(교사) “지원아, 이걸로 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종이가 자주 풀어져서 잘 안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공처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선생님하고 같이 이 테이프로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지원) “와~.”

(민호) “나도 나도.”

(교사) “민호도 테이프로 붙여볼까? 선생님이 여기 책상 위에 테이프를 잘라서 살짝 붙여 놓으면 손가락으로 하나씩 떼어서 종이공에 붙여보자.”

놀이확장



<출처: 네이버 블로그 '에고짱의 소소한 일상'>

- 습자지놀이에서 시작된 영아의 놀이가 습자지를 뭉치면서 종이공을 만드는 놀이로 연결될 경우 다양한 크기의 재활용품 상자나 플라스틱 통, 휴지 속심 등을 가까이 배치해 줄 수도 있다. 영아가 빈 상자 등에 습자지를 구겨 넣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놀이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놀이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 습자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여러 날 지속되는 경우 물뿌리개를 가까이 두고 물이 묻은 습자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해보는 놀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색깔물이 빠지는 것을 고려하여 바깥에서 진행해 볼 수 있다.
- 시간제 보육실 문의 유리가 영아의 키높이에 있다면 물뿌리개로 적신 셀로판지를 유리에 붙이면서 꾸며볼 수도 있다.
- 습자지놀이와 관련한 놀이사례는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168~170쪽 '나도 탈래! 같이 가요!'를 참고할 수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다양한 크기의 재활용품 상자나 플라스틱 통, 휴지 속심 등을 가까이 배치해 두었는데 영아가 자연스럽게 빈 상자 등에 습자지를 구겨 넣거나 할 경우 교사가 의도적으로 나비 문양 등의 형태로 꾸미도록 유도하지 말고 영아가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따라가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아가 습자지를 찢으며 부리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영아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준다.

꼬물꼬물 물고기놀이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색깔 풍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풍선을 제공하여 탐색해보게 한다. • 작은 풍선에 바람을 넣거나 물을 넣어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제공한다. 
<p>낚시놀이에 필요한 뜯채나 국자 등 도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을 준비한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놀이영역에 작은 크기의 풍선을 비치해두자, 영아들이 흥미를 보인다.

(영재) “이거 뭐지?”

(교사) “이게 뭐 같아 보여?”

(영재) “아, 풍선.”

(교사) “맛았어. 자 선생님이 바람을 불어볼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지?”

(영재) “와, 물고기다. 나도.”

(교사) “영재도 한번 풍선 불어볼까? 후~.”

• 놀이상황2

물고기 풍선을 여러 개 만들자, 물고기 놀이가 시작된다.

(민영) “물고기야, 너 지금 어디 가?”

(수지) “ 나는 엄마한테 갈 거야.”

놀이확장



<출처: 다음 카페 '꼬마대통령어린이집'>



<출처: 네이버 블로그 '카루카니'>

- 만2세 영아의 경우에는 큰 풍선을 붙여 시트지 등을 물고기 눈과 꼬리 등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끈을 달아 가지고 놀 수 있다.
- 물고기 풍선에 흥미를 보이면서 놀이가 지속되면 교사는 물고기 낚시놀이를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다.
- 영아들과 함께 물고기 풍선을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물을 부어 물고기 집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물고기 관련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물고기의 해엄치는 모습을 신체로 표현해볼 수도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작은 크기의 풍선을 영아가 직접 불게 하거나 입에 넣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작은 풍선의 경우에는 교사가 미리 불거나 물을 넣어 제공하거나 플라스틱 통이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탐색하게 한다.
- 물고기 관련 동요나 그림책, 사진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다.

02 여름(6~8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미끌미끌 미역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다양한 크기의 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역을 제공할 때 물에 불린 미역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마른 상태의 미역은 딱딱하고 끝이 날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 또는 다용도 김장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상황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나 다용도 김장매트를 준비한다. 
옷걸이 또는 작은 빨래건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확장에 필요한 옷걸이 또는 작은 빨래건조대 등을 미리 준비해 줄 수 있다.
다양한 모양의 풍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모양의 풍선을 미리 불어 보육실에 준비해 줄 수 있다. 이때 바람을 너무 많이 넣을 경우 터질 수 있으므로 말랑말랑할 정도로만 불어 놓도록 한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이용 영아 중 편식이 심한 영아가 있어 교사는 놀이영역에 물에 불린 미역을 미리 준비해두도록 한다. 시간제 보육실에 들어선 회원이가 젖은 미역에 흥미를 보인다.

(회원) “이게 뭐야?”

(교사) “어, 이게 뭘까?”

(회원) “나, 이거 먹어봤는데...”

(교사) “맞아, 이거 회원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들어있던 거야.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

손가락으로 살짝 미역을 만지던 회원이는 금방 손을 뒤로 뺀다. 옆에 있던 민호가 다가오더니 손으로 미역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린다.

(교사) “민호야, 미역 만져보니까 어때?”

민호는 대답 대신 얼굴을 찡그린다.

(교사) “미끌미끌... 그런데 민호는 미끌미끌해서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교사가 젖은 미역 하나를 교사 이마에 붙이자, 영아들이 깔깔거리며 웃는다. 그러더니 회원이와 민호 모두 미역을 만지기 시작한다. 각자 코에도 붙여보고 친구 손등에 붙여주기도 한다.

• 놀이상황2

다음날 시간제 보육실에 온 민호는 어제 갖고 놀았던 미역에 다시 다가가더니 젖은 미역 하나를 옆에 있던 풍선에 붙인다. 풍선 위 쪽에 여러 개의 미역을 붙이면서 “이거 머리아.”하고 말한다. 그러더니 풍선 전체에 계속해서 미역을 붙인다.

놀이확장



<출처: 다음 카페 '대전살롬어린이집'>



<출처: 다음 블로그 '꿈터어린이집'>

-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미역으로 놀이하다가 미역놀이에 대한 영아의 흥미가 지속되면 다용도 김장매트를 준비하여 온몸으로 미역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시간제 보육실 유리문에 젖은 미역을 붙여 꾸며보거나 풍선에 얼굴 모양을 꾸며볼 수도 있다.
- 옷걸이나 작은 빨래 건조대에 미역을 널어보면서 빨래놀이로 확장될 수도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교사는 영아들에게 일반적으로 미역이 물에 젖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영아가 미역을 발견하고 자신이 먹어본 미역국을 떠올린다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도 있다. 영아의 놀이는 자료를 단순히 탐색하다가 끝날 수도 있으며, 나중에 탐색놀이가 확장될 수도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 영아마다 마른 미역의 딱딱한 질감이나 젖은 미역의 미끌거리는 질감을 선호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교사는 개별 영아의 반응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역의 질감을 싫어하는 영아에게無理하게 만져보게 권하지 않아야 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 영아의 놀이가 단순하게 지속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모델링해주는 것도 놀이지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영아가 어린 경우 작게 잘라진 마른 미역은 입에 넣어 삼킬 수 있어 위험하고 찢릴 수도 있으므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물에 불린 미역을 제공하도록 한다.

두손가득 들꽃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여름에 피는 들꽃과 열매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와 주변을 산책하면서 여름에 피는 들꽃과 열매들을 탐색하고, 비닐 등에 담아와 시간제 보육실 놀이영역 바구니에 배치하거나 바깥에서 놀이할 수 있다. <div data-bbox="637 725 1062 1005" data-label="Image"> </div> <p><출처: 인스타그램 @hyony__효니:></p>
<p>투명한 비닐봉지나 소꿉놀이 시장바구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들꽃이나 열매 등을 주워 담아올 용도로 투명한 비닐봉지나 소꿉놀이 시장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산책을 다녀올 수 있다. 어린 영아의 경우 지퍼백이나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헝겊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소꿉놀이 시장바구니 등을 활용한다. <div data-bbox="637 1268 1062 1548" data-label="Image"> </div>
<p>도화지, 필기구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확장을 위해 도화지나 필기구류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들꽃을 탐색해본다.

(교사) “민호야. 이 꽃 좀 봐.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키가 많이 컸지? 민호랑 키 한번 재볼까?”

(민호) “내가 더 키 크다.”

(교사) “그렇네. 우리 민호가 이 들꽃보다 키가 더 크네. 김치랑 멸치랑 많이 먹어서 키가 쑥쑥 컸네. 들꽃은 뭘 먹어야 키가 쑥쑥 클까?”

민호는 손으로 해를 가리킨다. 들고 간 소꿉놀이 시장바구니에 영아와 함께 들꽃과 열매 등을 담아본다.

• 놀이상황2

오전에 산책을 가서 꺾거나 주워온 들꽃과 열매를 시간제 보육실 놀이영역 바구니에 담아둔다. 오후에 시간제 보육실에 온 지원이는 들꽃을 두 손에 차곡차곡 모아 꽃다발처럼 만들어 교사에게 건넨다.

(교사) “어, 이게 뭐지?”

(지원) “선물이에요.”

(교사) “와. 지원이가 선생님한테 꽃다발 선물을 주는 거야? 너무 예쁘다. 고마워. 감동받았어. 정말 고마워.”

지원이는 또 다시 꽃다발을 만들면서 ‘엄마 거’라고 말한다.

놀이확장



〈출처: 인스타그램 @luv_hyuni〉

- 하얀 도화지 위에 들꽃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꾸미면서 놀이할 수 있다.
- 어린 영아의 경우 시든 꽃잎을 주워와 꽃잎을 하나하나 따서 모아 꽃잎비를 뿌리거나 꽃잎을 입으로 '후' 불어보며 놀이해볼 수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봄부터 시간제 보육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봄에 봤던 봄꽃이나 들꽃이 여름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게 할 수 있다.
- 시간제 보육실 인근에 산책할 장소가 없을 경우 꽃 화분이나 들꽃을 준비하여 탐색해보거나 들꽃 사진 등을 이용하여 관심을 갖게 해 볼 수 있다.
- 들꽃을 꺾을 경우 뿌리는 그대로 두고 작은 가지와 꽃을 자르면 내년에도 다시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도록 한다.

아슬아슬 거미줄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종이테이프, 포장용 테이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떼거나 붙일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종이테이프를 준비한다. • 종이테이프 이외에 접착력이 좋은 포장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거미줄에 공 던지기놀이를 확장할 수 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다양한 색깔의 굵은 모루, 막대사탕, 수수깡, 아이스크림 막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깔의 굵은 모루나 반짝이 모루를 준비한다. • 거미의 몸통으로 꾸밀 수 있는 막대사탕이나 수수깡, 아이스크림 막대 등의 재료를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다. 
<p>거미가 좋아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미의 먹이로 주고 싶은 간식(날개 비닐 포장 캔디 등)을 적절히 준비한다. 이때 포장용 테이프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캔디가 적합하다.
<p>거미 관련 그림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미가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언어영역에 비치하거나 보육실 한쪽 벽면이나 바닥에 거미 사진을 크게 출력하여 붙여둔다.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p>배고픈 거미 저자 강경수 출판 그림책공작소 발매 2017.10.10.</p> </div> <div style="width: 50%;">  <p>아주 바쁜 거미 저자 에릭 칼 출판 몬테소리CM 발매 2005.04.20.</p> </div> <div style="width: 50%;">  <p>배고픈 거미와 행복한 쿵끼리 작가 이현희 출판 별간장 발매 2020.02.25. 평점 ★★★★★ 리뷰보기</p> </div> <div style="width: 50%;">  <p>거미가 줄을 타고 작가 이성실 출판 비룡소 발매 2013.07.05. 평점 ★★★★★ 리뷰보기</p> </div> </div>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예술가 거미</p> <p>저자 탕무니우 글그림, 조윤진 출판 보림 발매 2020.06.02.</p> </div> </div>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날씨가 조금 시원한 오전 시간에 유모차를 타고 바깥놀이터(또는 주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나무 위에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를 발견하고 영아가 흥미를 보인다.

(희재) “이거 이거...”

(교사) “어, 이게 뭐지?”

(교사) “거미가 집을 짓고 있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지금 어딜 열심히 가고 있을까? 희재처럼 산책을 가는 걸까? 아니면 배가 고파서 맘마를 먹으러 가는 걸까?”

(희재) “맘마..”

(교사) “아, 거미가 배가 고파서 맘마 먹으러 가는 거구나.”

• 놀이상황2

산책을 다녀온 희재는 시간제 보육실 바닥에 붙여놓은 거미줄과 거미 사진으로 다가간다. 교사는 여름철 바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미에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종이테이프로 보육실 바닥에 거미줄을 붙여두고, 언어영역에 거미 관련 그림책을 비치해두었다.

(희재) “이거 이거 아까... 거미...” 하며 호기심을 보인다.

(교사) “희재야, 이거 아까 산책하면서 만난 거미줄과 거미랑 똑같이 생겼다, 그렇지?”

교사는 봄부터 진행했던 ‘사각사각 습자지놀이’ 하면서 갖고 놀던 종이조각들로 영아들이 테이프를 붙여 만든 종이공을 활용하여 거미줄에 붙여볼 수 있도록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다가 교구장과 교구장 사이에 낮게 거미줄처럼 붙여준다.

(교사) “희재야, 아까 산책할 때 거미가 배가 고프다고 했지? 거미가 뭘 좋아할까?”

(희재) “까까.”

(교사) “그래. 거미가 까까를 좋아하는구나. 선생님하고 우리 거미에게 줄 까까 한번 찾아볼까?”

민호는 옆 교구장에 있던 작은 종이공을 가져와 거미줄에 붙인다. 교사가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자, 영아들이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흥얼거린다.

다음날 교사가 시간제 보육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벽과 벽 사이에 종이테이프를 거미줄처럼 영아 키보다 살짝 낮게 붙여 놓아준다. 시간제 보육실에 들어선 희재가 거미줄을 발견하자마자 몸을 낮추어 통과한다. 같이 들어온 엄마가 거미줄에 달아 줄이 끊어지자 영아가 “하하”하고 웃는다.

놀이확장



<출처: 다음 카페 '포항호성어린이집'>



<출처: 네이버 블로그 '바그비 홈놀이터'>

- 종이테이프나 포장용테이프로 만든 거미줄 놀이를 즐겨 하던 영아가 언어영역에 비치해 놓은 거미 관련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할 경우 함께 그림책을 볼 수 있다. 산책하면서 발견했던 거미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미가 좋아하는 것을 거미줄에 붙여볼 수 있다.
- 다양한 재질이나 색깔의 모루를 미술영역에 배치해두고 거미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이때 교사가 의도적으로 활동으로 이끄는 대신, 다른 날 놀이과정에서 모루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모루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영아에게 물어볼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진은 예시일 뿐이며, 어린 영아의 경우 거미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루를 마음대로 구겨서 거미처럼 표현해 볼 수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교사가 놀이확장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놀이확장 이외에 영아의 흥미나 관심이 다른 것에 쏠린다면 다른 종류의 놀이확장으로 진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 영아가 거미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따라하는 경우 거미의 모습을 신체로 표현해 보는 등의 놀이로 진행할 수도 있다.
- 영아가 거미를 무서워할 경우 억지로 관심을 갖게 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가 자연스럽게 거미와 친숙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흥미가 생길 때까지 지켜봐주도록 한다.
-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거미 만들기 대신 교사가 미리 거미 모양을 만들어 천정이나 벽 등에 붙여서 호기심이나 흥미를 갖도록 지원할 수 있다.

조물조물 물풀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밀가루풀 (또는 찹쌀가루풀), 치자가루나 물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풀(또는 찹쌀가루풀)을 만들어 미술영역에 배치해준다. 치자가루나 물감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p>투명한 플라스틱 그릇 또는 다용도 김장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상황이나 시간제보육 이용 영아의 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이나 다용도 김장매트를 준비한다. 투명한 그릇이 밀가루풀의 색깔을 탐색할 때 더 유용하다. 
<p>미술용 가운과 팔토시, 뒹자리, 전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그림을 그리는 놀이에 필요한 미술용 가운과 팔토시, 뒹자리, 전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p>물풀, 투명 지퍼백, 넓은 테이프, 물감, 색모래, 사인펜, 스티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확장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투명 지퍼백, 물풀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이 터지지 않게 붙여줄 넓은 테이프, 물풀에 섞어볼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나 색모래, 그리고 지퍼백 위에 사인펜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꾸며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미술영역에 밀가루풀(또는 찹쌀가루풀)을 만들어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둔다. 영아가 다가와 밀가루풀에 슬며시 손가락 하나를 담가본다.

(교사) “지수 손가락에 뭐가 묻었네. 이게 뭘까?”

(지수) “풀.”

(교사) “그래. 선생님이 하얀 밀가루로 풀을 만들었어.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 어떤 느낌이야?”

다른 영아도 보육실에 들어와 흥미를 보이자, 교사는 다용도 매트를 가져와 밀가루풀을 더 많이 넣어준다. 옆에 있던 노란색 치자가루를 뿌려주자, 영아들이 신기해하며 두 손으로 조물조물 섞는다.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쿡쿡 구멍을 내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친구의 손이나 교사의 손과 만나면 미끌거리는 촉감을 즐기기도 한다.

• 놀이상황2

다음날 교사는 미리 투명 지퍼백에 밀가루풀을 얇게 담아 놓았다. 영아들이 지퍼백에 담긴 밀가루풀에 관심을 보이며 손가락으로 꺾꺾 눌러보며 탐색한다.

(교사) “어제는 밀가루풀이 손에 묻었는데, 오늘은 풀이 손에 하나도 안 묻네? 신기하다 그치? 어제처럼 예쁜 색깔로 만들어줘볼까? 민호는 무슨 색깔로 만들어보고 싶어?”

(민호) “노란색으로.”

(교사) “그래. 노란 바나나색깔로 만들어보자.”

지퍼백 안에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보면서 탐색을 계속한다.

놀이확장



<출처: 홈페이지 '차이의 놀이'>

- 간편하게 물풀과 물감을 이용하여 색깔 물품놀이를 할 수 있다. 물풀 뚜껑을 열어 물풀을 조금 덜어낸 후 영아가 원하는 물감을 넣으면 된다. 물풀을 덜어내지 않고 물감을 넣으면 물풀이 넘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 물풀을 담은 투명 지퍼백, 물풀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이 터지지 않게 붙여줄 넓은 테이프, 물풀에 섞어볼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나 색모래, 그리고 지퍼백 위에 사인펜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꾸며볼 수도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물품놀이를 할 때 영아들이 입에 넣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물풀 대신 밀가루풀이나 찹쌀가루풀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만약 물풀을 사용한다면 투명 비닐백에 담아 영아의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밀가루풀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걸 꺼리는 영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영아의 특성과 연령에 따라 다른 놀이를 해보도록 배려해야 한다.
- 놀이재료에 따라 입에 넣는 등의 안전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 사전에 부모에게 여벌옷 등의 준비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좋다.

03 가을(9~11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말랑말랑 찰흙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찰흙(고령토) 또는 축축이모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찰흙(고령토) 또는 마르지 않는 축축이모래를 놀이영역에 제공해주도록 한다. 
다양한 모양의 도구들, 자연물, 재활용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모양의 찰흙놀이 도구, 모양찍기틀, 열매나 나뭇가지 등의 자연물, 작은 재활용품, 장난감 자동차 등 다양한 소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에 들어선 영아가 보육실 한쪽에 준비한 찰흙놀이 상자를 발견하여 곧바로 다가간다.

(교사) “민호가 찰흙놀이 해보고 싶구나. 한번 만져볼까? 어떤 느낌이 들지?”

민호는 한 손가락으로 찰흙을 살짝 만져보더니 이내 한 손으로 찰흙을 한 움큼 잡는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꺾꺾 누르면서 구멍을 내보기를 반복한다. 교사가 옆에서 찰흙 한 조각을 떼어내자, 민호도 선생님을 따라 한 조각을 떼어내어 두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작거린다.

뒤이어 보육실에 들어온 수민이도 찰흙놀이를 시작한다. 수민이는 여러 번 해보았는지 찰흙 한 조각을 떼어 손바닥으로 밀기 시작한다. 길게 말린 찰흙 모양을 본 민호가 ‘와, 지렁이.’라며 신기해한다. 교사가 ‘우리 누가 길게 길게 만드나 시합해볼까?’ 하고 제안하자, 영아들은 열심히 손을 움직인다.



<출처: 다음 브런치 '아빠랑 놀까'>

• 놀이상황2

오후에 보육실에 온 다른 영아도 찰흙놀이에 흥미를 보인다. 옆 교구장에 있던 자동차를 들고 오더니 찰흙에 바퀴 자국을 만들더니 “부릉부릉”하며 신나게 자동차놀이를 한다. 옆에서 민지는 빵칼로 길게 민 찰흙을 조각내서 교사에게 주며 “빵 드세요.”하고 말한다.

놀이확장



<출처: 다음 블로그 '햇님'>

- 영아가 찰흙을 충분히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보인다면 다양한 모양의 찰흙놀이 도구 이외에도 모양찍기틀, 열매나 나뭇가지 등의 자연물, 작은 재활용품, 장난감 자동차 등 다양한 소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찰흙을 제공할 때 잘 마르지 않는 찰흙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시간제 보육실 사전예약 영아의 월령이나 연령, 특성 등을 미리 파악하여 너무 어린 영아이거나 찰흙을 만져본 경험이 없다면 밀가루반죽을 제공해 볼 수 있다. 시간제 보육실에서 가을에 밀가루반죽놀이(물풀놀이)를 경험해본 영아라면 찰흙놀이에도 쉽게 흥미를 보일 수 있다.
- 교사가 처음부터 시범을 보이거나 주도하지 않아야 하며, 영아 스스로 찰흙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한다.
- 영아가 찰흙을 탐색하면서 손으로 움켜쥐어보기, 손가락 누르기, 조금씩 떼어내기, 손바닥으로 돌돌 밀기, 찰흙에 나무젓가락 등을 꽂아보기, 소꿉칼로 잘라보기, 두 조각을 하나로 뭉치기 등 다양한 탐색을 해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옆에서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다. 다만, 모델링 과정에서 영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찰흙을 갖고 논다면 영아의 놀이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며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바스락바스락 낙엽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단풍물 든 나뭇잎	• 가을이 되면 주변의 나뭇잎과 열매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절별로 다양한 나뭇잎이나 열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봄과 여름에 진행한 봄꽃놀이, 들꽃놀이 사진자료	• 지난 봄과 여름에 산책을 가서 주워왔던 나뭇잎과 꽃잎, 열매 사진자료를 보육실 낮은 벽면에 붙여준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영아들과 함께 시간제 보육실 주변에서 발견한 단풍물 든 낙엽을 주워온다. 보육실에 들어오자 영아 두 명이 자기가 주운 낙엽의 모양과 크기에 관심을 보이며 놀이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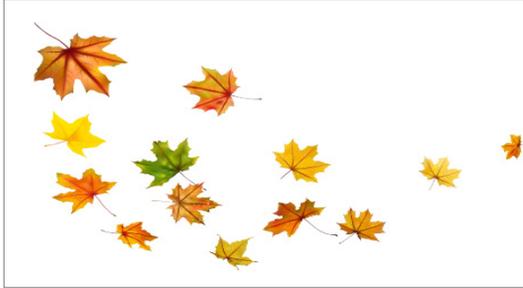
(미호) “내 거는 별모양이다.”

(서진) “와, 진짜 별 같다. 내건 음... 노란색 반달모양 같다. 그리고 내 거가 더 크다.”

• 놀이상황2

각자 주워온 나뭇잎을 벽에 붙여 둔 전지 위에 풀로 붙이면서 놀이가 시작된다. 큰 나뭇잎을 붙이려던 영아는 나뭇잎이 자꾸 떨어지자,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교사가 투명테이프를 떼어 영아에게 건네자, 영아는 열심히 나뭇잎을 붙인다. 한 영아는 나뭇잎의 크기 순서대로 붙이기 시작하고, 다른 영아는 빨간색만 골라서 붙인다.

놀이확장



<출처: 네이버 포스트 '우리아이뉴스'>



<출처: 다음 카페 '더퍼스트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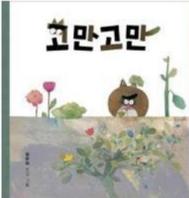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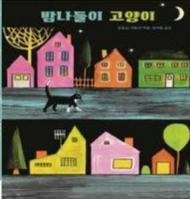
- 나뭇잎을 두 가지 모양으로 구분하여 섞어놓고 같은 모양 찾아보기 놀이로 확장할 수 있다.
- 큰 나뭇잎과 작은 나뭇잎 여러 장을 투명시트지로 보육실 바닥에 붙여놓고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로 확장해 볼 수 있다.
- 나뭇잎을 모아 낙엽방석을 만들어 탐색해 볼 수도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나뭇잎의 먼지 등 위생관리에 유의하도록 한다.
- 자연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봄부터 가을까지 관련 사진 등을 벽면에 붙여주거나 관련 그림책을 언어영역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 시간제 보육실 인근에 산책할 장소가 없을 경우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하는 영아 부모님께 낙엽을 지퍼백에 담아 가져오도록 요청하거나 교사가 미리 준비해줄 수 있다.

야옹야옹 고양이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고양이 관련 그림책	<p>• 고양이 관련 그림책을 언어영역에 비치해준다.</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margin-left: 10px;"> <p>문홍 털실이 또르르 아기 고양이야 어디 가나?(뚝뚝모두 누리)(양장본 HardCover)</p> <p>저자 노지 크로 (원음) 역자 신연미 출판 사파리 2016.11.7. 페이지수 32 사이즈 277*257mm 판매가 가격 9,900원</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margin-left: 10px;"> <p>야옹. 고양이 놀이(네버랜드 아기 그림책 16)</p> <p>저자 에즈라 잭 키츠 역자 공경희 출판 시공주니어 2010.11.5. 페이지수 30 사이즈 186*242mm 판매가 가격 6,750원</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margin-left: 10px;"> <p>우리 아기 첫 손가락 길 찾기 놀이책: 강아지와 고양이</p> <p>저자 스틸라 배곳 출판 어스본코리아 2016.7.19. 페이지수 10 사이즈 190*192mm 판매가 가격 9,900원</p> <p>구매이벤트 <어스본 코리아 런칭 3주년 기념 브랜딩전></p> </div> </div>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3, 1fr); gap: 10px;">       </div>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고양이 귀 모양 머리띠와 생쥐 모양 머리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이 귀 모양 머리띠와 생쥐 모양 머리띠를 역할놀이영역 등에 비치해두어 영아가 자연스럽게 고양이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하도록 한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놀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이는 줄처럼 긴 것 또는 생쥐를 좋아함. 낚시놀이 도구나 운동화 끈, 생쥐인형 등을 준비한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주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길고양이를 발견하자, 영아들이 호기심을 가진다. 교사는 고양이 관련 그림책을 언어영역에 비치하고, 고양이 사진이나 그림자료를 벽면과 바닥에 붙여놓는다. 산책길에 길고양이를 만나고 온 민호는 보육실 벽면에 붙여놓은 고양이 사진을 가리키며 “야옹 야옹”하며 관심을 보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원이도 함께 “야옹 야옹”하며 즐거워한다. 수지는 고양이 처럼 네발로 기어간다.

• 놀이상황2

오후에 보육실로 들어온 다른 영아도 고양이 그림책을 교사에게 내민다. 교사는 길고양이 봤던 경험과 연결하여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런 다음 고양이가 좋아하는 줄과 생쥐 인형, 고양이 인형을 놀이영역에 추가로 비치해둔다.

놀이확장

-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 고양이와 생쥐 역할놀이를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다. 이때 고양이 귀 모양 머리띠와 생쥐 모양 머리띠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고양이 이외에 생쥐나 강아지에 관심이 생기면 관련 그림책이나 사진자료도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상자나 쿠션 등을 이용하여 고양이(인형)를 위한 집을 함께 꾸며줄 수도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주변의 길고양이를 직접 만지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동물에 대한 배려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다.
- 시간제 보육실 내 교직원 중에 고양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교사가 고양이 사진이나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해 직접 얘기해주거나 보여주면서 진행해봐도 좋다. 또는 인터넷에 나오는 고양이 관련 짧은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데굴데굴 열매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알록달록한 색깔로 물든 다양한 모양의 열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을이 되면 주변의 나뭇잎과 열매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절별로 다양한 나뭇잎이나 열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봄과 여름에 진행한 봄꽃놀이, 들꽃놀이 사진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봄과 여름에 산책 가서 주워왔던 나뭇잎과 꽃잎, 열매 사진자료를 보육실 낮은 벽면에 붙여준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영아들과 함께 시간제 보육실 주변에서 발견한 단풍물 든 나무열매와 나뭇잎을 주워와서 바구니에 담아주었더니, 예은이가 미술영역에 있던 종이계란판을 들고 와서 칸칸이 열매를 넣기 시작한다. 교사가 다른 종이계란판과 요플레통 등을 추가로 제공하자, 영아마다 각자 원하는 통에 열매를 분류하는 데 흥미를 보이며 놀이가 진행된다.



<출처: 인스타그램 @shadow3803>

• 놀이상황2

시간제 보육실 한쪽 낮은 벽면에 봄과 여름에 봄꽃놀이, 들꽃놀이하면서 주워온 꽃, 나뭇잎, 열매 등의 사진을 붙여두자, 민지가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관심을 보인다.

(교사) “민지야, 지난번에 아주 더울 때 민지가 선생님한테 여기 사진에 있는 들꽃으로 꽃다발 만들어서 선물을 줬던 것 기억해? 선생님은 그때 민지한테 꽃다발 선물 받은 게 아직도 기억나.”

민지는 대답 대신 그때 생각이 났는지 빙그레 웃는다.

(교사) “그런데 민지가 여름에도 나뭇잎이랑 열매를 주워왔었지. 그때랑 색깔이 어떻게 달라졌지?”

(민지) “빨갭게 됐어요.”

(교사) “그래. 이번에는 나뭇잎이 빨갭게 물이 들었어.”

놀이확장



<출처: 인스타그램 @_jyoung_>



<출처: 인스타그램 @isujeong723>

- 영아들과 함께 주워온 가을열매와 나뭇잎으로 과일가게놀이나 영아가 좋아하는 곤충 등을 표현해 볼 수도 있다. 이때 작은 열매가 굴러다니기 쉬우므로 밀가루반죽이나 찰흙에 꼭꼭 눌러서 표현해 볼 수도 있다.
- 위 사진은 참고용일 뿐이며,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함.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밀가루반죽이나 찰흙에 열매나 나뭇잎을 꼭꼭 눌러 엄마 얼굴 등을 표현해 볼 수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영아가 작은 나무열매를 삼키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작은 열매 등을 보육실에 상시 비치하는 대신, 교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열매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연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봄부터 가을까지 관련 사진 등을 벽면에 붙여주거나 관련 그림책을 언어영역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 시간제 보육실 인근에 산책할 장소가 없을 경우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하는 영아 부모님께 가을열매 등을 지퍼백에 담아 가져오도록 요청하거나 교사가 미리 준비해줄 수 있다.

04 겨울(12~2월)에 어울리는 놀이자료를 활용한 놀이 운영



톡톡 뽁뽁이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뽁뽁이(에어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고 긴 뽁뽁이를 충분히 준비한다. • 미술영역 바구니에 비치하거나 보육실 창문이나 바닥에 붙여둘 수도 있다. 
다양한 색깔의 물감, 색모래, 셀로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나 색모래, 셀로판지 등을 준비한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엄마 품에 안겨 시간제 보육실로 들어오던 민호는 유리문에 붙여놓은 뽁뽁이에 흥미를 보인다.

(교사) “어? 민호야,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볼까?”

민호는 손가락으로 뽁뽁이를 꺾꺾 눌러보다가 우연히 ‘톡’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멈칫하며 손을 뒤로 뺀다. 잠시 후 다시 손가락으로 옆쪽 뽁뽁이를 꺾꺾 누르며 ‘톡톡’ 터트리기를 반복한다.

• 놀이상황2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교사는 시간제 보육실 한쪽 바닥에 뽁뽁이를 붙여놓는다.

엄마와 함께 시간제 보육실로 들어선 예원이 바닥에 붙여둔 뽁뽁이를 발견하고 엄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뽁뽁이 위로 올라선다.

(엄마) “예원아, 우리 예원이가 발로 밟으니까 툽툽 소리가 나네?”

(교사) “예원이가 발로 밟으니까 북북이가 반갑다고 말하는 거 같은데? 예원아도 북북이한테 ‘안녕’ 하고 말해줘볼까?”

(예원) “안녕, 북북아.”

놀이확장



<출처: 네이버 블로그 '엄마아이행복만들기'>

- 북북이놀이에 흥미와 관심이 지속되면 가까이에서 매직을 배치해줄 수 있다. 매직을 발견한 영아가 매직으로 북북이 위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매직 뚜껑을 열어 마음대로 긁적거리 보게 하도록 한다.
- 놀이과정에서 북북이 아래에 진한 색깔의 습자지나 셀로판지 등을 넣어 색깔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놀이확장을 지원할 수 있다. 물감을 제공할 경우에는 북북이 2장을 이용하여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짜 넣은 다음 물감이 새지 않도록 가장자리 부분을 포장용테이프로 마감처리 해준다.
- 북북이놀이와 관련한 놀이사례는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69~70쪽 ‘툽툽 놀러요’를 참고할 수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어떤 영아는 북북이의 촉감이나 북북이가 터지는 소리 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의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영아에게는 처음부터 북북이를 만져보게 하기보다 다른 영아들이나 교사가 북북이로 재미있게 놀이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흥미를 갖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영아가 북북이를 얼굴에 뒤집어쓸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영아의 놀이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소복소복 눈꽃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A4용지(또는 이면지), 색종이, 신문지 등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종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꽃을 만들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종이를 충분히 준비한다.
<p>꽃송이 폼 또는 전분가루와 지퍼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를 잘게 잘라 눈꽃놀이 하기가 번거롭다면 꽃송이 폼을 준비해 줄 수 있다.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꽃송이 폼을 입에 넣을 수도 있고 정전기로 인해 관리가 어려우므로 전분가루를 지퍼백에 넣어 바닥에 붙여줄 수 있다. <div data-bbox="697 990 1045 1218" data-label="Image"> </div>
<p>놀이영역 매트나 다용도 매트, 또는 파라슈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놀이영역 매트나 다용도 매트를 준비한다. 놀이확장에 필요한 파라슈트나 큰 보자기도 준비할 수 있다. <div data-bbox="697 1341 1045 1570" data-label="Image"> </div>
<p>도화지, 물풀, 설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확장을 위해 도화지, 물풀, 설탕 등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눈이 내리는 날, 시간제 보육실에 들어온 혜진이 어깨에 눈이 묻어 있다.

(교사) “혜진이 왔어? 여기 혜진이 어깨에 하얀 게 뭐지?”

(혜진) “어... 밖에 눈이 와요. 그래서... 이케...?”

(교사) “아, 밖에 눈이 와서 혜진이 어깨에 눈이 쌓였구나.”

놀이하다가 혜진이가 창가로 가더니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본다. 교사는 하얀 종이와 놀이영역 매트를 들고와 보육실 바닥에 내려놓는다.

(혜진) “선생님, 지금 뭐해요?”

(교사) “어, 우리 친구들과하고 눈꽃놀이 하려고.”

(민호) “와, 신난다.”

(교사) “이 종이로 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혜진) “이렇게요.”라고 말하며 종이를 찢기 시작한다.

• 놀이상황2

종이 찢는 데 재미를 붙인 영아들이 종이를 더 달라고 한다. 교사가 하얀 종이 이외에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함께 제공하자, 영아들이 알록달록한 색종이를 하얀 눈 속에 뿌리면서 신나게 놀이한다.

(민호) “선생님, 이것 보세요. 빨간 눈이 됐어요.”

(혜진) “노란 색깔도 있다. 와. 웃기다.”

놀이확장



<출처: 다음 블로그 '한별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캐나다 오타와맘의 유아미술놀이'>

<출처: 다음 카페 '구립남서울힐스테이트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실에서 시작된 눈꽃놀이에 영아들의 흥미가 지속되면, 시간제 보육실 내 유희실에서 파라슈트(또는 큰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눈꽃을 흩날려 볼 수도 있다.
- 검정색 도화지 위에 물풀로 원하는 모양을 그린 후 설탕가루를 부려서 설탕 눈꽃 만들기를 해볼 수 있다.
- 꽃송이폼과 다용도매트를 이용하여 눈꽃놀이를 해볼 수도 있다. 이때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입에 넣을 우려가 있거나 정전기 등으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전분가루를 지퍼백에 넣어 마감처리를 한 후 바닥에 붙여두면 영아가 손가락으로 문질러보거나 걸으면서 촉감을 느껴보고 '보드득' 소리를 내보거나 눈 밟는 느낌을 경험해보게 할 수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시간제보육기관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눈이 자주 내리지 않아 눈을 본 경험이 없는 영아가 많다면 눈이 온 풍경 사진을 출력하여 보육실 벽이나 바닥에 붙여주어 영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 눈꽃놀이를 하고 나면 영아에게 선생님을 도와 눈꽃을 치워줄 수 있도록 하고 신나는 놀이처럼 눈꽃을 정리해본다.
- 눈 오는 날 눈을 만져본 경험 등을 얘기 나누면서 눈꽃놀이를 해볼 수 있다. 또한 눈이 오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거나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불구불 모루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다양한 색상과 굵기의 모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상과 굵기의 모루를 충분히 준비한다. 이때 모루의 길이를 다양하게 하여 준비한다. 
페트병이나 음료수통, 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병이나 음료수통, 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물감, 꽃송이 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루로 만든 다양한 모양과 함께 눈꽃놀이에 사용했던 꽃송이 폼을 이용하여 물감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미술영역 바구니에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과 굵기의 모루를 준비한다. 민우는 초록색 굵은 모루 하나를 집더니 구불구불 구부리더니 교사에게 보여주며 “난 무서운 뱀이다.”하고 말함. 옆에 있던 우영이는 긴 모루를 팔뚝에 감고 교사에게 와서 보여준다.

(교사) “아이고 무서워. 민우 뱀은 정말 진짜 같은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선생님한테도 알려줄 수 있을까?”

(민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고...”

(교사) “아, 모루를 구불구불 구부리면 멋진 뱀이 되는 거였구나.”

(우영) “선생님, 이것 보세요.”
(교사) “와, 우영이 팔에 있는 게 뭐지?”
(우영) “시계예요.”
(교사) “와, 멋지다. 우영이 시계는 뱅글뱅글 무늬가 있네.”

• 놀이상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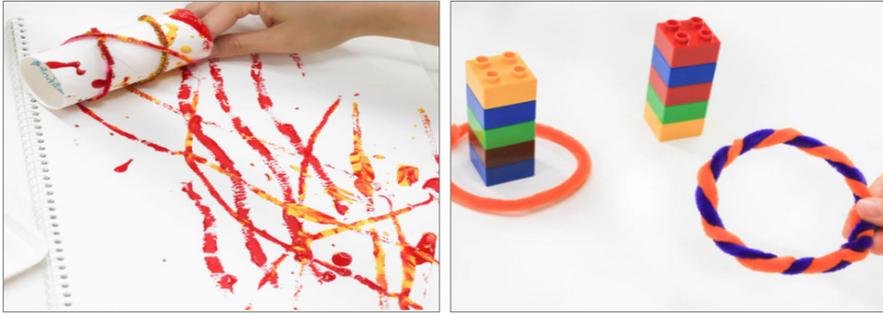
모루를 갖고 놀던 이것저것 모양을 만들던 민우는 미술영역 바구니에 있던 빈 음료수통을 가져오더니 모루를 음료수통에 계속해서 밀어넣어 꽉 채운다. 우영이는 옆에 있던 구멍 뚫린 체에 가느다란 모루를 넣으려고 애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짐보리'>

놀이확장





<출처: 홈페이지 '차이의 놀이'>

- 영아들이 모루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보이면 모루와 빨대를 이용하여 모루 도장 찍기놀이를 해보거나, 휴지 속심에 모루를 감아 롤러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해볼 수도 있다.
- 레고블럭과 모루를 이용하여 고리던지기 놀이도 가능하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모루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 모루 끝 부분의 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모루의 겉이 털실로 되어 있고 쉽게 구부러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아가 모루의 특성을 충분히 탐색하도록 한다.
-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모양 구부리기를 해볼 수 있다. 이때 만들기의 결과물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딸랑딸랑 방울놀이

교사의 사전 놀이자료 지원

놀이자료	놀이자료 지원 Tip
<p>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크기의 크리스마스 트리 세트를 준비한다. 예산을 고려하여 영아의 키높이 정도의 크기를 준비할 수도 있다. 
<p>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 방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 방울과 기타 소품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영아의 놀이자료 탐색과 교사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1

시간제 보육실 현관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것을 발견한 시간제보육 영아가 트리에 호기심을 가지며 다가선다.

(교사) “예원아,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지? 저 위에 뭐가 달려 있나 볼까?”

교사는 예원이를 안아올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방울을 손으로 만져보게 도와준다. 예원이는 계속해서 별 모양, 장화 모양, 지팡이 모양의 소품들을 만져본다.

(교사) “예원아, 우리 교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볼까? 예원이가 좋아하는 걸 선생님이 갖다 놓았어.”

• 놀이상황2

시간제 보육실에 들어선 예원이는 보육실 한쪽에 놓여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교사는 예원이, 민호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세트 상자를 개봉한다.

(예원) “이거 뭐야?”

(교사) “예원아, 이거 본 적 있어?”

(예원) “어...산타 하부지...?”

(교사) “맞아,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지?”

(희재) “우리 집에도 있어, 산타...”

(교사) “아, 희재네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았어?”

(희재) “네, 아빠랑 어... 엄마랑 같이...”

(교사) “아빠랑 엄마랑 희재랑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재미있었겠네. 우리 교실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놓을까? 선생님이 트리 꾸미는 거 도와줄 친구 있어요?”

놀이확장



<출처: 네이버 블로그 '가구지도'>

- 시간제 보육실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영아와 함께 방울을 달며 놀이하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것에 흥미가 지속되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트리 꾸미기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 간식으로 자주 제공하는 귤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살짝 말리고 다양한 모양 찍기 틀을 바구니에 함께 넣어둘 수도 있다.

교사의 놀이지원 시 유의점

-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과정에서 방울의 소리를 들어보거나 모양 탐색 등을 할 수 있으나, 교사가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영아가 우연히 발견하는 놀이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서 적절한 놀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방울이나 소품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 있을 경우 영아 손에 묻어 입에 넣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루가 묻어 있지 않은 방울과 소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영아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방울을 다는 것을 반복하여 즐길 경우 방울을 떼었다 걸었다 하는 놀이를 반복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김혜경, 김홍은, 문혁준, 박은혜, 유애열, 임혜영, 장영희, 조혜진(2002). 효과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지침서. 서울: 다음세대.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2018). 2018 심화과정 놀이상호작용 총론.
- 안경자, 장선경, 박영신, 손윤희, 김진희(2018).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현장이야기. 서울: 공동체.
- 이영, 김은기, 우현경(2006). 부모·교사와 함께 하는 영아놀이. 서울: 다섯수레
- 한국보육진흥원(2015). 시간제보육 영아초기적응 및 상호작용.
- 한국보육진흥원(2017).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심화교육과정 '상호작용의 이해'
- Far West Labortory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1988). First Moves: Welcoming a child to a new caregiving settin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Whitebread, D. (2012). The importance of play: A report on the value of children's play with a series of policy recommendations. Brussels, Belgium: TIE.
- Wittmer, D. S. & Peterson, S. H. (2011). 영아발달과 반응적 교육. 이승연, 김은영, 강재희, 문혜련, 이성희(역). 서울: 학지사(원저발간 2006)

집필진

-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박초아 교수
-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신윤승 교수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한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2020년 11월 인쇄

2020년 11월 발행

발행인 | 유희정

발행처 | 한국보육진흥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전화 | 02) 6901-0100

홈페이지 | [Http://www.kcpi.or.kr](http://www.kcpi.or.kr)

인쇄처 | 아람프린트 (02-2265-0320)